결과보고서 Final Report

2021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21. 9. 29 (수) - 10. 1. (금) 15:00-17:30

2021 Onlin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29 Sep. - 1 Oct. 2021 15:00-17:00 (GMT+9)

Ministry of Enviro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AB 한국위원회 MAB National Committee of Republic of Korea
KNPS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결과보고서 Final Report

2021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21. 9. 29 (수) - 10. 1. (금) 15:00-17:30

2021 Onlin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29 Sep. - 1 Oct. 2021 15:00-17:00 (GMT+9)

목차 Contents

04 행사 개요
06 General Information
08 프로그램
10 Programme
12 주요 내용
60 Speeches and Presentations
112 사진 | Photos

행사 개요

배경 및 목적

-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전략 및 다자간 환경협약의 목표를 실행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소로서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개 이상의 복합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정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보호지역을 그 지정 목적에 맞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이에 국제보호지역의 특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보호지역 관리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관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일시 2021.9.29.(수)-2021.10.1.(금), 15:00-17:30
※ 전면 화상회의로 진행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 후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참가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국내 및 전세계 보호지역 관리자 및 정부부처, 시민단체,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국내 59명, 해외 214명)

주요내용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 관리의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 (생태관광,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역사회 참여)
국제보호지역 관리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언어 영어 및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General Information

Background and Objectives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Biosphere Reserves, UNESCO Global Geoparks, World Heritage Sites, and Ramsar Sites) have a growing international role, as they offer abundant opportunities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o put into practice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ith the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ncluding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managers and administrators of such areas face even more complex and integrated challenges in 1) how to increase the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ies, 2) how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visitors and the general public, and 3) how to promote ecotourism.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further in-depth research and capacity-building of those in charge of managing IDAs to ensure the proper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se areas.

The 2021 Onlin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managers of IDAs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management capacities, focusing on the above-mentioned challenges as the primary theme. Each day of the seminar will focus on a different challenge and will feature a keynote speech offering expert knowledge on the topic, and four case presentations on recent, outstanding management experiences, followed by a panel discussion.

Dates and time	15:00 - 17:00 Seoul time (GMT+9) 08:00 - 10:00 Paris time (GMT+2) 29 September – 1 October 2021
Organizer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Participants	Managers and administrator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 related NGOs, civic organizations, and partner groups (273 registrants)
Themes	Major challenges in management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 Invol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 Communication strategy - Ecotourism Sharing examples of best practice in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Language	English and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rovided)

프로그램

2021. 9. 29 (수)

15:00 – 15:10	**개회식**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제 1: 국제보호지역과 주민참여
15:10 – 15:40	**기조 강연** 나타라잔 이시와란 Deep-time Digital Earth (DDE) Centre 이사장 (전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장)
15:40 – 16:40	**사례 발표** • 일본 이토이가와 세계지질공원 (브라운 테오도르) • 홍콩 세계지질공원 (찬 유 남) •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권미영)
16:40 – 17:10	화상 분과 토론
17:10 – 17:30	국내 참가자 전체 토론 (한국어 진행)

2021. 9. 30 (목)

	주제 2: 국제보호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15:00 – 15:30	**기조 강연** 우경식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국제자연보전연맹 세계보호지역위원회(IUCN WCPA) 지질유산전문가그룹 의장)
15:30 – 16:30	**사례 발표** • 스위스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 (슈미트 호퍼 아네트) • 스페인 바스크해안 세계지질공원 (힐라리오 에이셔) • 청송 세계지질공원 (주성옥)
16:30 – 17:00	화상 분과 토론
17:00 – 17:30	국내 참가자 전체 토론

2021. 10. 1 (금)

주제 3: 국제보호지역의 생태관광	
15:00 – 15:30	**기조 강연** 세리아로 켈리 미국 샴플레인-애디론댁 생물권보전지역 공동 의장 (폴스미스 대학 호텔경영학 부교수)
15:30 – 16:30	**사례 발표** • 베트남 깟바 생물권보전지역 (레 탄 투옌) • 탄자니아 응고롱고로 렌가이 세계지질공원 (므완쿤다 조슈아)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김나미)
16:30 – 17:00	화상 분과 토론
17:00 – 17:30	국내 참가자 전체 토론

Programme

Day 1 (Wed. 29 September 2021)

GMT +9 15:00 - 15:10	**Opening ceremony** - Mr. Kyung-Sam Moon, Director Genera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Dr. Kyung Koo HAN, Secretary-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me 1: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y in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15:10 - 15:40	**Keynote speech** - Dr. Natarajan Ishwaran, Executive Head, Deep-time Digital Earth (DDE) Centre (Former Director,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UNESCO)
15:40 - 16:40	**Case presentation** - Itoigawa UNESCO Global Geopark (Japan, Mr. Theodore Brown) - Hong Kong UNESCO Global Geopark (China, Ms. Yu Nam Chan) - Yeoncheon Imjin River Biosphere Reserve (Republic of Korea, Ms. Miyoung Kwon)
16:40 - 17:10	Panel discussion

Day 2 (Thu. 30 September 2021)

Theme 2: Communication Strategy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MT +9 15:00 - 15:30	**Keynote speech** - Prof. Kyung-Sik Woo,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Ge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ir, IUCN WCPA Geoheritage Specialist Group)
15:30 - 16:30	**Case presentation** - Entlebuch Biosphere Reserve (Switzerland, Dr. Annette Schmid Hofer) - Basque Coast UNESCO Global Geopark (Spain, Dr. Asier Hilario) -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Republic of Korea, Ms. Seongok Ju)
16:30 - 17:00	Panel discussion

Day 3 (Fri. 1 October 2021)

Theme 3: Ecotourism in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MT +9 15:00 - 15:30	**Keynote speech** - Prof. Kelly Cerialo, Co-chair, UNESCO Champlain-Adirondack Biosphere Reserve (Associate Professor, Paul Smith's College)
15:30 - 16:30	**Case presentation** - Cat Ba Biosphere Reserve (Vietnam, Mr. Tuyen Thanh Le) - Ngorongoro Lengai UNESCO Global Geopark (Tanzania, Mr. Joshua Mwankunda) -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Republic of Korea, Ms. Nami Kim)
16:30 - 17:00	Panel discussion

주요 내용

개회식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개회사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한경구 사무총장님, MAB한국위원회 현병관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비록 화상이지만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2006~2018년 5개의 람사르 습지 등록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전 세계의 국제보호지역을 그 지정 목적에 맞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2022년 제주도에 설립예정인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인 '글로벌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개관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GCIDA)"는 2012년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후속조치로 제주도가 IUCN, 유네스코, 람사르협약 그리고 환경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외교부 주관으로 센터 설립에 필요한 협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내로 정부와 유네스코간에 협정체결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개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가 제주에 개관되면 오늘 화상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히 국외에서 참여하시는 관리자분들은 센터의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제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센터 설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워크숍은 국제보호지역에서의 주민참여방안,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생태관광에 관해서 많은 사례와 관리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 여러분들의 보호지역 관리역량을 한 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참여하시는 분들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정기적인 소통으로 전 세계의 모든 보호지역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개회식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개회사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워크숍의 시작을 함께하는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의 후원으로 개최하며, 이 자리에 전 세계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을 달성하기 위해 그 의미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은 ▲국제보호지역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방문객,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생태관광을 증진하기 위해 더 복합적인 관리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흘 간 개최되는 본 워크숍에서는 세 명의 기조강연과 아홉 곳의 사례발표를 통해 앞서 제시된 세 가지 관리 과제에 관한 통찰력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인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내년에 제주도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그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워크숍이 계획되었습니다. 본 연구훈련센터는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센터가 국제보호지역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참가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가까운 미래에 직접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Dr. Kyung Koo HAN
Secretary-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주제 1: 국제보호지역과 주민참여

기조강연

나타라잔 이시와란 박사,
DDE센터(Deep-time Digital Earth: 지구 지질학 시간 디지털화 센터) 이사장 (전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장)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18개월 동안 초토화되었던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향한 염원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2021년 '국제보호지역(IDA) 관리 과제'에 관한 온라인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다. 2019년 11월 유네스코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승인한 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국제 여행, 회의, 세미나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대면 만남이 불가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보호지역 (IDA) 관리에 관한 정보, 지식 및 경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되었다.

새로 부상하는 포스트-코로나(Post-COVID 19) 시대는 국제보호지역(IDA) 관리의 여러 측면에 관해 데이터 기준을 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지역사회와 국제보호지역 간 관계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GCIDA)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국제보호지역 관리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 협력 의제를 설계, 개발 및 구현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주도할 국제개발 협력 의제의 주요 윤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보호지역 (IDAs: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이번 발표는 지역(예: 유럽) 또는 하위지역(예: ASEAN 유산 공원들)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국제보호지역을 다룰 것이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의무 및 권한은 다음 4종류의 국제보호지역에만 적용된다.

- 세계유산: 167개국 1,154개 유산 – 이중 문화유산 897, 자연유산 218, 혼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39개 존재. 이중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자연 유산만 고려함.
- 생물권보전지역: 129개국 714곳
- 람사르습지: 170개국 2424 곳
- 세계지질공원: 44개국 169곳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유치한 제주도처럼 전 세계적으로 육상 경관과 해양 경관이 혼합된 지역들이 있다. 4가지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보유한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지역 중 일부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국제 협약(람사르협약(1971)과 세계유산협약(1972))과 프로그램(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1971))에 기반하여,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을 각각 지정한다. 창설 년도에 따라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2022년에 50주년이 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1998년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모든 보호지역은 유네스코와 직접 관련이 있다.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및 지질공원의 국제 사무국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담당한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은 스위스 글랜드에 있지만, UN 회원국의 람사르 협약 비준/준수는 유네스코에서 위탁 관리한다.

국제 환경 및 개발 의제의 진화

4대 국제보호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와 관리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차 지구정상회의 즉,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장소 및 생물 종 중심의 이니셔티브에서 상위 레벨의 정책 중심의 협약 및 의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3대 협약 즉,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1(Agenda 21)은 모든 발전 분야 및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 (광역도, 광역시 및 시·군 등)과 관련이 있다.

1992년 이후, 보전과 개발의 통합은 지속가능발전 즉, 지역사회가 직면한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발전 경로를 조화시키는 데 필수 조건이 되었다. 세계지질공원은 1998년 개념화되던 당시부터 지역사회의 발전 요구를 세계지질공원 설계 및 관리 요건에 통합하였다. 다른 3대 국제보호지역, 즉 리우정상회의 보다 20년 전에 설계 및 개념화가 이루어진 보호지역 체제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992년 이후 다양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철새에게 중요한 습

지를 보호하는 람사르습지는 법적 보호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법적 보호지역인 핵심구역(생물다양성 가치가 뛰어남)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핵심구역을 둘러싼 완충구역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보전 친화적 개발의 실험장으로서 협력구역에 관한 정의가 필요했다. 본래 미국 국립공원을 모델로 한 세계자연유산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했다.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규범과 관행에 따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자연유산 즉, 솔로몬 제도의 이스트 레넬섬(East Rennell Island of Solomon Islands)은 1998년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1992년 이래, 전세계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계속 진화하여 2015년 9월 UN에서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발전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나열해 보면, 수생태계 보전(SDG 14), 육상생태계 보전(SDG 15), 기후행동(SDG 13), 깨끗한 물과 위생(SDG 6)과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SDG 7)의 지속가능 이용, 기아종식(SDG 2), 건강과 웰빙(SDG 3), 양질의 교육(SDG 4) 및 인간 안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국제보호지역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유네스코는 전략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이 지방,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교육의 실험장으로 국제보호지역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ies)"라는 용어는 국제보호지역 안팎에 거주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호주 세계유산지역 내 영토를 전통적으로 소유해온 원주민도 지역 공동체에 포함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완충, 협력구역의 일부인 토착, 농촌 또는 도시사회 내 원주민도 포함된다. 람사르습지에도 다양한 주민이 존재한다. 제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COP)에서, 습지도시 인증제를 도입하고 습지보호에 탁월한 18개 도시를 지정했다. 이중 대한민국의 제주, 인제 및 창녕을 포함하여 11곳이 아시아 도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세계지질공원은 설계 및 개념화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를 통합하였다.

지역사회 입장에서 관광, 여행 및 숙박 산업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주요 토대이기 때문에, 국제보호지역 관리 시 관광을 고려하는 곳이 많았고, '과잉 관광(over-tourism)'은 세계자연유산 여러 지역의 주요 위협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관광에 의한 소득 창출은 더 넓은 농촌 및 지역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청년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지역민의 생활양식, 음악 및

요리와 관련된 무형 문화 자산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했다. 또한, 국내외 자원봉사자, 학계 및 전문가가 보호지역 관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는 여러 사업과 이니셔티브에 도움이 되어왔다.

오지에 위치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보호지역, 특히 중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일부, 태평양 일부 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관광 계획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 지역사회는 지속해서 어업, 농업, 임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광업 같은 채굴 산업을 허용하기도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로, 고속도로, 교량 및 수력과 풍력 발전, 태양열 및 기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 같은 인프라 개발을 자신들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인프라 요구를 충족하는지 또 그 부정적 영향을 어디까지 완화하는지는 국제보호지역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 사이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은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및 람사르습지가 더 크다. 왜냐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이러한 절충안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여행 제한, 야생동물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의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안전 대책은 이미 국제보호지역을 포함하여 관광에 의존하는 보호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동아프리카, 네팔, 몰디브 및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 국가 및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일부 국가의 4대 국제보호지역의 경우, '부유한' 중국 관광객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국내 및 역내 관광이 주를 이루는 중국, 미국, 서유럽의 국제보호지역은 코로나 시대가 저물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과잉 관광'에 신음하는 곳들은 잠시나마 숨을 고르며, 지속가능발전 경로에 맞춰 관광객 관리 및 관련 숙박업 인프라 개발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소득 창출 외에 대안이 거의 없는 국제보호지역의 경우, 지역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관리자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안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보호지역 관리를 조정하여 보호지역 관리자들과 지역사회 간 상호 유익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관리 당국 간 상호 유익한 관계 구축에서 관리자, 행정 담당자,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관한 교육은 실제 사례 연구와 경험 공유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론, 개념 모델 또는 자본 및 정치적 맥락과 하등 상관없고 검증되지 않은 시나리오는 오히려 이러한 파트너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주도하는 '국제보호지역 관리에서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의제

팬데믹으로 고사 직전이었던 해외 여행사 및 이벤트 기업에 희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새롭게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국제보호지역 안팎의 지역사회 현황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과 코로나가 세계적 맹위를 떨쳤던 2020년초 이후 국제보호지역과 지역사회 관리 관계에 대한 문헌 검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문헌 및 관련 연구를 통해 방대한 출판물을 분석하여 과거 주요 연구 분야와 미래에 부상하는 중요 연구 방향과 분야를 식별할 수 있다.

비대면과 혼합형 소통, 즉 직접 만나는 면대면 회의와 가상 회의를 혼합하는 방식이 국제 과학 및 개발 협력에서 새로운 표준(뉴노멀: new normal)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와 링크를 전제로, 전문가와 논의, 데이터 연구 및 결과 공유를 위한 기술 워크숍, 국제보호지역 안팎에 거주하는 현장 관리 인력 및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온라인 소통이 가능하다. 데스크 리서치(desk research)와 비대면/혼합형 워크숍, 컨퍼런스 및 기타 이벤트의 조합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보호지역 관리자와 지역사회 간 관계 현황과 그 이후 발전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향후 연구, 교육 및 모니터링 이니셔티브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 및 그 변이 바이러스가 향후 1~2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해외여행 패턴 및 선호 목적지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 관광 및 숙박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제보호지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활용해 수입원을 다변화해야만 한다. 지역사회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보호지역의 완충 및 협력 구역에서 토지이용과 토지 용도 변경에 기반하여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가능성과 잠재력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와 실험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의 성과는 언론, 정치

및 외교 현장의 주요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국제보호지역은 사람, 장소 및 특정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취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덕분에,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역사회와 상의하여 선택한 우선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

보호지역 관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당 지역의 우선 과제를 정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이번의 온라인 주제별 워크숍의 후속 작업으로, '국제보호지역 관리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라는 주제로 연구 및 훈련 의제를 설계하기 위한 일련의 워크숍을 마련할 수 있다. 2021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 2030 의제의 마지막 10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유네스코 전략은 UN 회원국이 UN 2030 의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과 학습의 장으로 국제보호지역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또 권장한다. "지역사회, 국제보호지역 관리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개발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다른 현실을 세계적으로 조율 및 통합할 수 있기에 시의적절하다.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UNESCO Category 2 Centre)로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 있는 노력에 동참하는 양자 및 다자간 개발 파트너로부터 광범위한 지원과 협력을 도출할 것이다.

사례발표 1.
일본 이토이가와 세계지질공원

브라운 테오도르,
사업담당관(PM), 이토이가와 지질공원 협의회
(이토이가와 세계지질공원)

지속가능발전, 현장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권한 강화

이토이가와 세계지질공원은 일본 북서부 해안의 니가타현(Niigata Prefecture)에 위치한 이토이가와시 전역을 포괄한다. 2009년에는 일본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i) 지각판(plate)을 따라 형성된 호(arc) 모양의 섬(이토이가와-시즈오카 구조선(Itoigawa-Shizuoka Tectonic Line))으로, ii)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 세공 문화 및 iii) 일본 동-서문화의 경계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이토이가와 세계지질공원 프로젝트는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역 내 지질,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2) 지질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세대의 시민을 양성하며, 3) 지역주민들의 단결과 자부심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지역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지질공원 관리구조에 지역사회 참여, 정기적인 다자간 소통, 기존 네트워크와 구조를 응용할 뿐 아니라 다-학제 간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이토이가와 세계지질공원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것이 지질공원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공한다.

질의 응답

질문 1: 발표에서 언급된 교육 정책은 국가정책인가, 아니면 이토이가와 시에만 해당하는 정책인가?

발표자: 지질공원 연구 교육 정책(Geopark Studies Education Policy)은 우리가 이토이가와 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발한 지역 정책이다. 즉 국가 정책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역 정책이다.

질문 2: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려고 할 때 직면한 주요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발표자: 이토이가와를 포함한 많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시급한 문제는 '동기 부여'이다. 지역사회 규모가 매우 작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컨셉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 여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 센터와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질공원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사례발표 2.
홍콩 세계지질공원

찬 유 남
농수산업 및 보전부 홍콩 세계지질공원장

1960년대와 70년대 홍콩의 외딴 마을과 지역사회 대부분의 경우, 마을 사람들이 도시 지역이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지금은 많은 지역사회가 쇠퇴하였으며, 소수의 노인들만 남아 있다.

2017년, 홍콩 세계지질공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같은 뿌리, 같은 유래(Same Roots, Same Origins)"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역사에 관해 지역주민 및 해외 이주민과 구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역사, 문화, 유산 및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리고 나서 지역 지질공원 공동체의 유산을 홍보하고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정보를 "스토리 룸(story rooms)"과 출판물에 옮겨서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또한 교육 및 녹색 관광에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리 및 프리젠테이션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자신의 '스토리 룸'을 운영하고, 문화와 전통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들에게는 외부인이 설명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이 더 흥미롭다. 지역사회의 경우, 자신만의 스토리 룸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홍보함으로써 소속감이 높아졌다. 그 결과 스토리 룸은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홍콩 지질공원의 중요 파트너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기만 하면, 홍콩 세계지질공원은 직접 지원 형태로 또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슈퍼 태풍이 홍콩을 강타한 후 우리는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청소 작업을 돕고,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관할 정부 부처 및 전력회사와 연계하여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손

상된 도로를 수리하여, 전기 공급 재개를 도왔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개별 마을의 요청으로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했다.

비정부기구(NGO)도 홍콩 지질공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시범 투어를 기획·조직하며 지역사회 및 관광 가이드를 위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 관광 발전에 기여했다. 고품질의 해설과 지질공원 가이드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NGO 중 하나인 홍콩 지질보전협회(Association for Geoconservation, Hong Kong)는 홍콩 지질공원 및 여행협회와 협력하여, "지질공원 추천 가이드(Recommended Geopark Guid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몇몇 후원자들은 홍콩 지질공원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왔다. 이들의 소중한 자금 지원은 개별 사업에 유연성을 제공하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후원자들은 또한 사업을 공동 관리하고 스토리 룸의 복원 작업과 같은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질의 응답

질문 1: 홍콩의 경우, 보호지역/지질공원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관/정책이 있는가?

발표자: 정확한 규정이나 정책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상향식' 접근법 또는 지역주민의 이익 증진 노력 같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질공원 컨셉에 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편익을 제공한다.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례발표 3.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권미영
연강술술효연재 대표,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주민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YGEN)의 회원은 10명으로,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경기도 연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작가들과 사업가, 초등학생, 시민활동가, 농업인, 주민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회원들은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연천의 소중한 역사를 공부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사람들이 훌륭히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 지금과 같은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2019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실상 지역주민들은 생물권 보전지역이 무엇인지, 또 지질공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은 군청에서 진행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세미나, 포럼, 지속가능한 한탄강 지질공원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현장교육에 참여하면서 생활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세미나 때 들었던 개구리사다리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친환경 농업 지역과 물거미 서식지 주변 농수로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고 수시로 가서 관찰하고 기록했다. 개구리사다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구리들이 긴급할 때 개구리사다리를 이용해서 뛰어올라오는 모습을 보고는 감격을 했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다른 활동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연천군의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 등의 탐사를 다니며 그들을 발견했을 때는 함께 환호를 했다. 민통선 등 곳곳으로 지질탐사를 다니며 형형색색의 돌들에 서로서로 감탄도 했다.

그리고 세미나때 뵈었던 새와 생명의 터 무어스박사님의 새와 자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해, 회원 모두가 새와 생명의 터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연천군의 새 지도를 만들어 볼까 하며

조류탐사도 다녔다.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보고 새가 보이면 빨리 내다보고 자연을 살피는 일들이 몸에 익었다. 그러면서 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주최했던 겨울철새 동시조사, 여름철새 동시조사에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우수상의 쾌거를 거두었다. 우리 회원 몇몇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도 하며 휴일에 물거미서식지에 가서 생태계교란식물을 퇴치하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환경 좋은 연천군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서 연천여행 시리즈를 만들며 회원들이 연천의 명소 한곳씩 공부하고 해설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연천군의 곳곳을 공부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서울의 발도로프학교의 학생들의 지질공원 투어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 활동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귀농귀촌인들께도 교육을 해드리고 정화활동도 함께 했다.

우리 연천이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농사를 짓는 마을의 주민들께서는 '생물권이 뭔데요?' '핵심구역이 뭐예요?' '우리가 농사짓는 데 규제하고 불편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하며 걱정들을 많이 했다. 이런 분들께 우리가 직접 활동을 하며 새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개구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면서 마을분들도 점차 끄덕여 주시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어서 뿌듯하며 자랑스럽기도 하다.

11월이 되면 우리 주변의 갈대, 억새, 수크령, 부들 등 토착식물들의 씨앗을 채취하여 생태계교란식물이 가득한 하천에 구역을 정해서 심어보고 생태계교란식물과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이 우리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의 회원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생 회원인 6학년 선우에게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반딧불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미래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오늘도 감격스럽기만 하다.

앞으로도 많은 교육들과 세미나들이 만들어져 연천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처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생물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지질공원에 대해 관심도 갖고 유네스코를 함께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2021 Onlin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Case Presentation
Ms.Miyoung KWON
CEO
Yeongansoolsool Hyoyeonjae
Geopark Tour
- Returning Farmers and Rural Residents
Ministry of Enviro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NPS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주제 2: 국제보호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조강연
우경식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IUCN WCPA 지질유산전문가그룹 의장)

서론

지질학은 물리적 과정과 그 산물을 포함한 지구의 역사(물리적 지질학)와 생명체의 진화(역사적 지질학)를 다룬다. 넓은 의미에서 지질학(지구과학)에는 해양 환경(해양 지질학) 또는 지형과 경관(지형학) 및 그 진행 중인 과정이 포함된다.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래,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지질학적 과정에 관한 숨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주어진 지역의 다양한 지질학적, 지형학적 요소를 지질다양성(geodiversity)이라고 한다. 지질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지질 교육의 잠재력이 높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 보전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지역이 내재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미적 및 생태적 요소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어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질유산(geoheritage)이라고 부른다. 지질유산 지역의 규모는 작은 노두(outcrop)에서부터 거대한 산맥까지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전 세계 수많은 국제 프로그램과 조직 중에서 지질유산 보전을 위한 것은 거의 없다. 유네스코는 자연 보전을 위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세계유산과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지질유산 보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입증해야 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명소(지질명소: geosite)를 포함해야 하며, 지질보전, 지질관광 및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두 프로그램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지질관광(geotourism)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질관광은 특히 지질과 경관에 중점을 둔 자연 지역 관광의 한 형태이다. 지질관광은 지질명소로의 관광 및 감상과 학습을 통한 지질다양성 보전과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지질 지형물을 개인적으로 방문, 지질 탐방로 및 전망대 활용, 가이드 동반 투어, 지질활동 및 지질명소 방문객 센터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Dowling and Newsome, 2018). 호스(Hose) (2012a) 박사는 지질관광의 역사적 이론적 토대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했다. 호스 박사는 현대 지질관광에서 상호 연관된 3대 측면, 즉 지질보전(geoconservation), 지구역사(geo-history) 및 지질해설(geo-interpretation)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제시했다. 추후 전미 지리협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가 단순한 지질학적 구성요소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해 지질관광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즉 지질관광은,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 같은 다양한 형태의 틈새 관광을 포함한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지질관광에 지리적 개념을 채택하였지만, 처음에는 지질이라는 용어에 국한했다. 마침내 국제 과학계에서, 지질관광을 지질, 환경, 문화, 미학, 유산 및 거주민의 안녕을 고려하여 영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관광이라는 정의에 동의하였다 (Dowling and Newsome, 2018). 이는 지질관광의 개념과 목적이 지질공원(geopark)의 개념 및 목적과 거의 동일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질관광의 경우, 지질 및 더 폭넓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항상 포함·제공하여, 관광객이 해당 명소를 방문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지질교육(geo-education)에는 자료를 개발하여 지질관광의 해설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교육 자료로는, i) 탐방 전과 탐방 중에 이용할 팸플릿, 리플릿, 동영상 등의 개발, ii) 전망대 및 현장 관련한 해설 안내판, iii) 탐방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지질 탐방로, iv) 가이드 동반 투어 및 시청각 자료, 수집한 암석에 관한 대화형 전시물, 동영상 상영 및 정기적 강연 등을 포함한 방문객 센터 등이 포함된다 (Migoń., 2018). 지속가능한 지질관광을 유지하고 달성하려면 적절한 계획, 자원 및 명소의 지질보전, 효율적인 대화형 해설 프로그램, 방문객 만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혜택 등이 필요하다. 해설은 지질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단순히 암석과 경치의 미적 감상이 아니라 학습과 이해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관광 유형 중에서도 지질관광의 특성을 고려한 해설이 필요하다(Dowling and Newsome, 2005; Hose, 2012b). 그러나 동시에 성공적인 해설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지질관광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뉴섬 박사 (Newsome et al.) (2013)는 해설을 제공하는 주요 기법으로, 출판물과 웹사이트, 인터넷 교육 자료, 방문객 센터, 해설 인프라가 설치된 자체-가이드 탐

방로 및 가이드 동반 투어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지질관광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감상 대상(암석, 광물, 경치, 지질·지형적 변화 과정 등)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가치를 고려할 때, 표트르(Piotr) (2018) 박사는 이러한 기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다: (1) 안내판처럼 관광객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설 해설 시설, (2) 가이드북, 브로슈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휴대용 해설 장비, (3) 방문자 센터, 박물관 및 전시회를 포함하여 지질관광 전후에 사용 및 상담할 수 있는 현장-외(off-site) 시설 및 전용 웹사이트, 그리고 (4) 일반적으로 가이드 동반 관광 중에 가이드와의 직접 소통 등이 있다.

보호지역의 관리자(주로 대다수 국가의 지방 정부 공무원)가 지질학적 지식을 잘 모른 채 생태계나 생물다양성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국가에서 해설 시설을 통해 방문객과 효과적인 소통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과학 전문가들은 교육관광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해설 안내판 제작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다. 미곤(Migoń) 박사는(2018) 또한 이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이유를 언급했다. 첫째, (대부분의 지질 및/또는 지형적 정보뿐만 아니라) 지질유산은 종종 어려운 주제로 간주되며 소수의 방문객만 관심을 둔다. 일반 대중은 생물다양성 또는 생태계보다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훨씬 적다. 둘째,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 학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방문객들은 너무 과학적인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해설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기금 출처가 항상 명확하지도 않으며 쉽게 접근할 수도 없다. 넷째, 특히 외딴 지역에서는 해설 시설을 운영할 자격 있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다섯째, 특히 노출된 지역에 안내판과 패널을 설치하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여길 수 있다. 본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관광을 위한 해설판 및 방문자센터 활용법을 다루고자 한다.

관광은 자기 주도 관광(self-guided tour), 가이드 동반 관광(guided tour), 그리고 가이드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대규모 단체 관광(mass tour)이 있다. 대규모 관광은 일반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교육관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가이드를 동반한 소수 인원의 관광이 교육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단순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단체 관광에 대응해 특별한 방법을 개발해 볼 수 있다. 자기 주도 관광에서 효과적인 탐방을 달성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방문객 센터 내 해설판 및 효과적인 대화형 전시물 같은 양질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해설 (안내) 판

해설판의 주요 장점은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심 있는 관광객은 교육 탐방로를 돌기 위해 더 이상 휴대용 해설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준비가 덜 되거나 우연히 방문한 경우 다른 곳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찾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제에 따라 두 종류의 해설판이 가능하다. 한 종류는 인과적 또는 지질적으로 서로 관련 없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관광지의 입구까지 뻗어 있는 도로가 이러한 종류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전형적인 장소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양호하지만, 그래픽 디자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해설 대상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또 다른 유형은 방문자의 관심이 특정 주제에 집중되는 특별 안내판이다(Migoń, 2018). 특정 주제를 다루는 안내판에 대한 다양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규칙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알려주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전달한다.
- KISS 이론 (Keep It Simple, Stupid– 단순하고 쉽게 전달하라)을 준수한다. 단일 안내판에 정보가 너무 많은가? 텍스트가 길거나 또는 그래픽 디자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너무 많은 정보 전달은 관광객에게 의도한 메시지를 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님은 분명하다.
- 3초 규칙(the rule of three seconds): 보통 방문객은 안내판을 읽을지 여부를 3초 이내에 결정한다. 내용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많을 때), 방문객은 읽지 않는다.
- 누구에게 해설을 제공하는가? 방문객의 범주는 매우 다르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Dowling, 2011).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지질과 암석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2) 콘텐츠(내용)

- 해설판의 제목이 충분히 매력적인가?
- 내용이 너무 어려운가? 너무 전문적인 언어로 된 정보는 일반 방문객의 관심을 끌 수 없다. 또한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지형지물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피해야 한다 (Migoń, 2018).
- 해설판에 사진 또는 삽화가 충분한가? 방문객이 해설판에 표시된 지형지물과 해설판의 내용을 쉽게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설 대상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매우 유용

할 수 있다. 참고용으로 다른 추가 사진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가? 대부분의 아시아 관광지의 경우, 이를 해설한다기보다는 모양에 따라 이름을 정하는 정도에 국한된다(Migoń, 2018).
- 방문객이 해설판에 표시된 명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가? 필요한 경우, 관광객이 해당 지형물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붙은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해설 대상 물체의 표면에도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얼마나 많은 언어로 표시하는가? 해설판에 이용할 언어를 결정하기 전에 해외 방문객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3) 위치 및 관리

- 보여주고자 하는 지형지물의 경우, 해설안내판을 똑바로 세워 해당 지형물을 가려서는 안 된다. 항상 해설판과 대상 지형지물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다.
- 특정 지형지물을 설명하려면 해설판에 해당 지형지물의 사진을 담고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해당 지형지물을 가리켜서 보여준다.
- 대부분 장소에서 경사진 패널(inclined panel)이 사용자 친화적이다. 즉 방문객이 설명하는 지역을 보면서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설명을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의 경우, 똑바른 직립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유지 보수를 위해 필름 재료를 인쇄하고 영구적 인프라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 최고의 자재는 녹 방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이지만 제작비가 비쌀 수 있다.

요약

교육관광은 공학과 같은 시스템으로 달성할 수 없다. 철저한 계획과 심사숙고, 그리고 과학자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참고 문헌

Dowling, R.K., 2011,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 1–13.

Dowling, R.K. and Newsome, D., 2005, Geotourism's issues and challenges, In: Dowling, R.K. and Newsome, D., Eds., Geotourism,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p. 242–254.

Dowling, R.K. and Newsome, D., 2018, Geotourism: definition, characterisitic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Dowling, R. and Newsome, D., Eds., Handboon of Geotourism, p. 1-22.

Newsome, D. and Dowling, R.K. (eds.), 2010,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scape. Oxford. Goodfellow Publishers.

Hose, T.A., 2012a, Editorial: Geotourism and geoconservation. Geoheritage, 4, 1-5.

Hose, T.A., 2012b, 3G's for modern geotourism. Geoheritage, 4, 7-24.

Migoń, P., 2018, Geo-interpretation: how and for whom? In: Dowling, R. and Newsome, D., Eds., Handboon of Geotourism, p. 224-233.

Newsome, D., Moore, S.A. and Dowling. R.K., 2013, Natural Area Tourism. Ecology, Implacts and Management (2nd edition), Bristal, Channel View Publication.

사례발표 1.
스위스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

슈미트 호퍼 아네트 박사,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Biosphäre Entlebuch)의 과학협력자

엔틀레부흐 지역과 엔틀레부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엔틀레부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BE: UNESCO Biosphere Entlebuch)은 스위스 중심부에 있다.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 주변의 7개 지역에 약 17,000명이 거주한다. 전체 둘레는 394km²로, 국가 표면적의 약 1%를 차지한다.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은 전형적인 알프스 주변 농촌 지역이다. 6,000여 명의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중 22%가 농업에 종사하고 관광이 또 다른 중요 산업이다. 400여 개의 협회와 클럽이 있는 이 지역주민들은 활발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이 지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보호지역(핵심구역 8%, 42%는 유지구역)은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중에서, 앤틀레부흐는 습지와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하다.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은 관련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논의 결정한다. 관리팀 인력은 총 13명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에흐 엔틀레부흐 상품(Echt Entlebuch-Products)"과 "생물권 시장 협회(Biosphäre Markt AG)": "에흐 엔틀레부흐(엔틀레부흐 진품)" 라벨은 20년 전에 개발되었다. 즉, 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보장하는 라벨이다. 상표권 소유자는 UBE 지자체 협의회이다. 오늘날, 500여 상품에 라벨을 부착해 왔다. 지역 밖에서 이런 상품들을 마케팅하기 위하여, 12명의 생산자들이 2013년 '생물권 시장 협회(Biosphäre Markt AG)를 창설했다. 오늘날 연

매출은 430만 스위스 프랑이다. 시장 플랫폼은 전문적이며 스위스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 두 곳에 상품을 납품한다.

- 지속가능 관광 상품과 "마케팅풀(Marketingpool)":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통해 손님들은 생물권에 대해 알게 된다. 각 지역 공동체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주제(에너지, 황무지 등) 별 '발견 허브(discovery hub)'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마케팅하기 위하여, 관광 분야의 가장 큰 업체들, 즉 두 곳의 산악 케이블카 단체, 가장 큰 관광 리조트 두 곳과 UBE가 "마케팅풀(Marketingpool)"이라는 공동 관광 마케팅팀을 설립했다. 오늘날 공동으로 기본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한다.

- 문화 행사: "알팝파트"(소 떼를 불러 모아 알프스를 내려가는 의식): 공동으로 소 떼를 불러 모아 알프스산을 내려가는 의식을 재현한 훌륭한 프로젝트이다. 이는 UBE 고산 지대 농업의 미래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다. 약 1,500명의 손님이 1차 "알팝파트(Alphabfahrt)"에 참여했으며, 현재 13,000명이 이 행사를 위해 방문한다. 고산지대 농민, 관광 협회, 지방 자치단체 및 많은 자원봉사자가 본 축제를 조직하고 UBE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결론

여러 사례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추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 파트너십: 가능할 때마다, 지명도 있는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 친선 대사의 역할: 지역 주체들과 항상 제품 및 관광 상품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친선 대사 역할을 한다.
-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제품, 관광 상품, 이벤트는 UBE라는 상위 브랜드 하에서 제공된다. 이는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인식을 강화한다.

두 가지 부가가치 연구에서 이러한 전략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여름에 엔틀레부흐 생물권보전지역 관광의 총 부가가치는 520만 스위스 프랑이다 (2012). 반면 '에흐 엔틀레부흐' 라벨이 부착된 상품(Echt Entlebuch products) 판매의 총 부가가치는 약 580만 프랑이다 (2017). 이를 일자리로 환산하면, UBE 덕분에 해당 지역들에 100개의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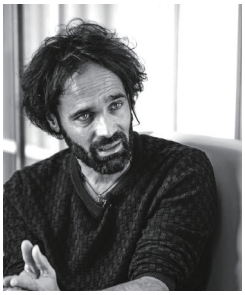
Knaus F. 2012: Bedeutung, Charakteristiken und wirtschaftliche Auswirkungen des Sommertourismus in der UNESCO Biosphäre Entlebuch. Resultate einer umfassenden Gästebefragung. Interner Bericht, ETH Zürich und Biosphärenmanagement UBE, Schüpfheim.

Knaus F. & N. Backhaus 2016: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Swiss Parcs. Swiss Academies Fact Sheet 9(3). Bern.

Knaus F., Ketterer L. & D. Siegrist 2017: The economic impact of labeled regional products: The experience of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Entlebuch.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37(1): 121–130.

사례발표 2.
스페인 바스크 해안 세계지질공원

힐라리오 에이셔 박사,
바스크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과학국장
(국제지질과학연맹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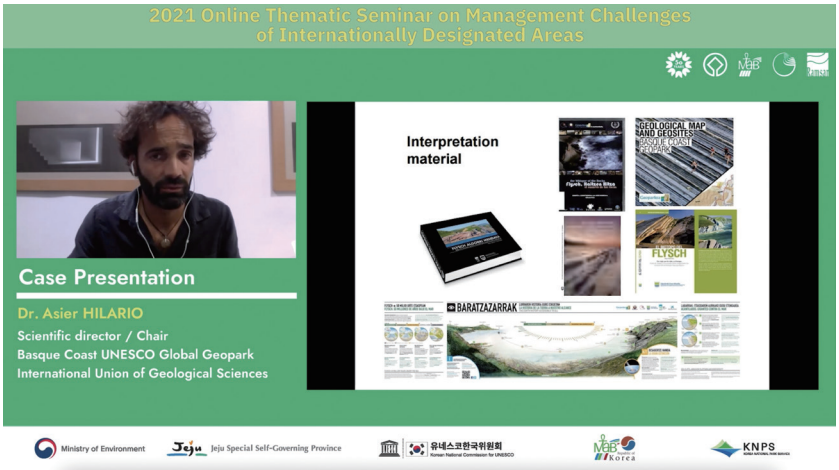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GGp)의 중요한 활동 분야이다. 잘 조율된 커뮤니케이션은 지역사회 간 소속감과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입지를 강화하는 기본 도구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는, 현지 주민과 방문객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 각 대상 그룹에 맞추어 메시지와 언어를 조정해야만 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알리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과학,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일반 가치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주요 지질학적,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보전과 지속가능성도 일반적인 핵심 아이디어로 추가되어야 한다.

바스크 해안 세계지질공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해당 지역의 주요 가치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음의 주요 메시지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1) 지질학적 시간(Deep time. 심원한 시간):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개념은 지질학적 과정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에서 바스크 해안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2)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기후 및 생명의 진화와 관련하여 암석에 기록된 대규모 지질학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및 미래의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3) 인간의 진화: 인류의 수많은 선사시대 환경은 우리 조상의 문화, 예술 및 생태계와 조우할 기회를 제공한다.
4) 바스크 문화와 정체성: 바스크(Basque)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중 하나이다. 우리의 언어는 살아있는 화석이자 우리의 강력한 정체성과 전통의 보고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면, 다가가고자 하는 대중의 유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교육 및 홍보 자료(신문, 대중매체 및 소셜 미디어, 지도, 전단지, 안내판, 안내소, 박물관, 디지털 해설 기기 등)는 특정 유형의 대중을 대상으로 신중하게 설계하여 제공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준비된 가이드와 인간적인 접근이 지질공원을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가이드 동반 투어 프로그램을 특히 신뢰한다 (자세한 정보: https://geoparkea.eus/en/).



사례발표 3.
청송 세계지질공원

주성옥
청송군 관광정책과 생태지질담당 주무관(지질학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단일 통일된 지리적 영역으로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교육관광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송 지질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인류 보편의 문제인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청송 지질공원의 교육프로그램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지질학이라는 학문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edutainment) 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청소년지질탐험대), 지역아동센터(지오드림), 청송 지질공원해설사협회(지오라이프) 등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청송 지질공원해설사가 대상별 맞춤 해설을 제공하는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은 청송 지질공원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이다. 특히 해설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프로그램 참가 인원은 43%, 운영 횟수는 52% 상승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설 프로그램 참가 인원이 55% 감소하여, 청송 지질공원은 코로나 확산예방과 과학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비대면 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청송 지질공원 관련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화산폭발 및 공룡화석 발굴 체험키트를 통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관광객들도 청송의 지질을 가정에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청송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강의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질공원 운영 노력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네스코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및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주제 3: 국제보호지역의 생태관광

기조강연

세리아로 캘리
샴플레인-애디론댁 생물권보전지역 공동 의장
(폴 스미스 대학 호텔경영학과 부교수)

서론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여행 제한의 결과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2019년에 비해 올해는 국제 관광객이 10억 명 정도 감소하고 관광 총수입도 1조 3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UNWTO Tourism Data Dashboard, n.d.). 관광과 직접 관련하여 1억에서 1억2천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국제 관광지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UNWTO Tourism Data Dashboard, n.d.).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오히려 관광 관리자가 국제보호지역의 생태관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더 중요하게는 팬데믹에 드러난 과제를 어떻게 실행 가능한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평가하고 숙고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 관리자는 국제보호지역의 건강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상태를 보호하는 보다 총체적이고 협력적인 생태관광 모델을 다시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국제보호지역에서 생태관광 관리자들이 현재 직면한 과제를 개략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관광 생태계 전반에 걸친 회복력 구축, 관광이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 완화, 관광으로 인한 환경 피해 완화, 야생동물 보호, 국제보호지역에서 자연 자산의 보전 대 상품화 문제 등이 있다. 국제보호지역의 생태관광 관리자들에게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들을 소개하고, 더불어 관광이 국제보호지역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와 여러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보호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세계유산을 뜻한다.

생태관광의 기본 정의 및 원칙

세계생태관광협회(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015)에 따르면,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유지하며 해설과 교육을 포함하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있는 여행"이다.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계생태관광협회에서 정한 정의는 보전, 인간, 자연 복지 및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국제보호지역의 생태관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에플러 우드(Epler Wood) (2002)는 관광지의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7대 핵심 원칙이 있고 관광 관리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7대 핵심 원칙은 국제보호지역에서 생태관광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때 기초 및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에플러 우드(2002, p.10)에 따르면 생태관광의 7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다.
2.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유지한다.
3. 해설/학습 경험을 포함한다.
4. 관광객과 관광 산업 측면의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한다.
5. 주로 소기업이 소규모 그룹에게 관광 경험을 전달한다.
6.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가능한 한 적게 소비해야 한다.
7. 특히 농촌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이들의 소유권 및 사업 기회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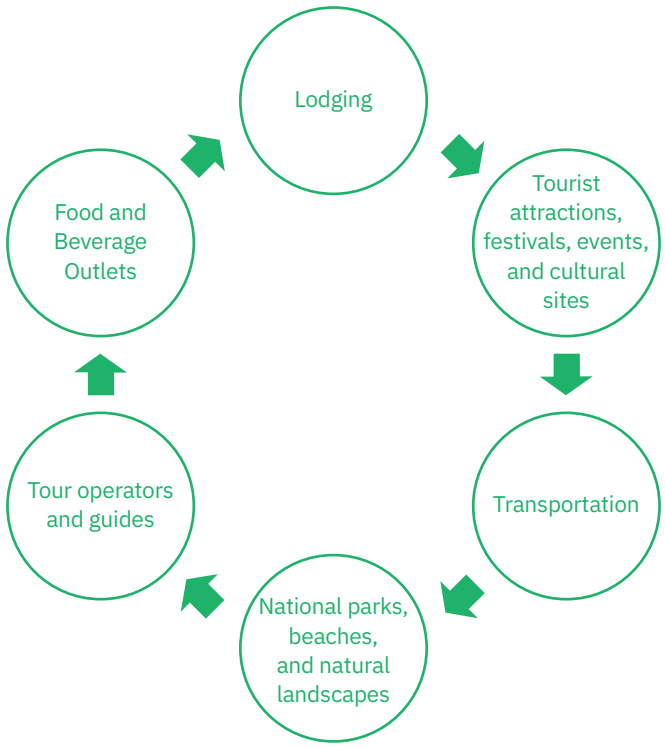
국제보호지역 내 생태관광에 대한 현재 과제와 기회

국제보호지역 내 관광 관리자가 생태관광의 7대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다. 본 발표에선,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5가지 주요 과제와 더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할 기회 창출에 중점을 둔다. 5대 과제는, i) 관광 생태계 전반에 걸친 회복력 구축, ii) 관광의 사회 문화적 피해 완화, iii) 관광의 환경 피해 감소, iv) 야생 동물 보호, v) 자연 자원의 상품화 대(vs.) 보전 간 갈등이다.

관광 생태계 전반에 걸친 회복력 구축

국제보호지역 관리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전체 관광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부록 A 참조).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행 제한 조

치는 숙박, 식음료, 관광지/명소, 교통, 자연경관, 여행사를 포함하여 관광 생태계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관광 부문의 갑작스럽고 전례 없는 변화는 전체 관광 생태계에 걸쳐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어, 관광 부문의 각 측면에서 회복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더 좋게 재건"하고 좀 더 회복력 있는 관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는 관광 산업의 각 부문을 고려하여 관광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관광의 각 부분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세상에서 관광 관리에 대한 전체-시스템적 접근법을 위해선 민-관 파트너십도 통합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탈리아의 레드로 알프스와 유디카리아(Ledro Alps and Judicaria) 생물권보전지역과 아다멜로-브랜타(Adamello-Brenta)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지역 관광 위원회는 다양한 관광 이해관계자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예: 가상 해외 유학 프로그램) 및 회복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여행사 및 숙박 시설과 협력했다.



부록 A 관광 생태계

관광의 사회적 문화적 피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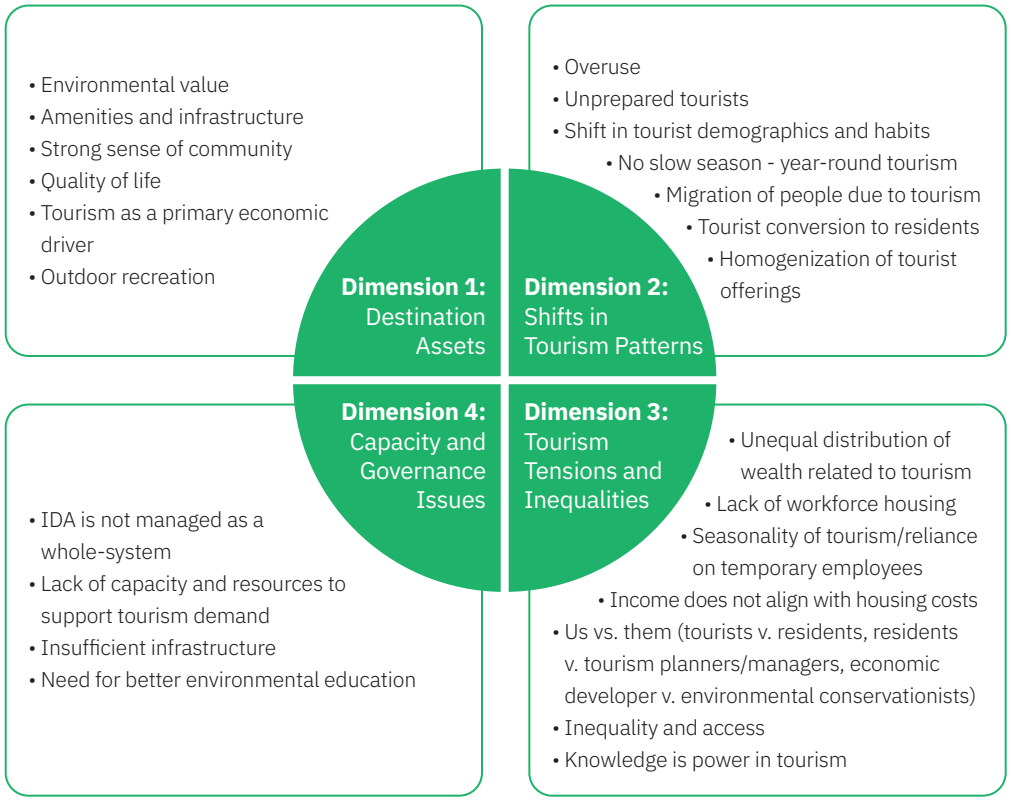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가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과제는 관광의 사회적 문화적 피해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무결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관광의 사회적 영향력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무형적 요소(예: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도구와 자원 없이 국제보호지역에서 관광의 사회적 영향력을 정량화하고 이를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관광 관리자가 국제보호지역에서 관광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있다(부록 B 참조). 국제보호지역에서 관광의 사회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것 외에도 관광 관리자는 문화 명소를 보전 및 홍보하고, 음식 축제, 미술 전시회, 이야기, 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를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된다. 국제보호지역에서 독특한 문화유산을 기념하고 보전하는 사례의 예로는 남아프리카 케이프 웨스트 코스트(Cape West Coast) 생물권보전지역과 케이프 플로랄 킹덤(Cape Floral Kingdom) 세계유산으로 동시 지정된 지역의 콰뚜산(!Khwa ttu San) 문화 센터이다. 해당 지역의 경관을 형성한 사람들의 문화유산과 전통 생태 지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콰뚜산 문화 센터를 지었다. 센터에서는 산(San)족을 고용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 및 생태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큐레이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관광의 환경 피해 감소

국제보호지역의 관광 관리자가 직면한 세 번째 과제는 관광의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관광 관리자는 자연 자원의 남용, 오염, 탐방로 침식, 수생 침입종 같은 관광의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자연 지역에서 고품질 관광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관광 관리자는 보전, 디지털 장비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존 피해지역 복원, 방문객 영향력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피드백과 함께 기반 시설 계획을 조정하여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광의 영향력을 해결할 수 있다. 환경 영향을 추적하고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야생동물보존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를 포함한 국제 조직 3곳이 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 툴(IBAT: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같은 온라인 디지털 툴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IUCN 적색 목록 (IUCN Red List),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생물다양성 주요 지역에 관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Key Biodiversity Areas) 같은 3가지 국제적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을 추적 분석한다. 인근 제조 공장의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국제보

호지역 사례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람사르습지인 프랑스 남서부의 아르카숑 분지(Bassin Arcahon)이다. 제조 폐기물과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지역의 취약한 습지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과거 훼손된 습지 서식지를 복원하고, 오르니톨로지크 뒤 테이히(Ornithologique du Teich) 보호구역에서 조류(새) 번식을 개선했다. 생태적 복원 사업으로, 해안선 개선,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탐방로 유지보수, 습지 생태계와 현재 번성하는 조류 개체를 보여주는 해설 안내판 설치 등이 진행되었다.

Tool to Assess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in IDAs



부록 B 국제보호지역 내 관광의 사회적 영향평가 도구

야생 동물 보호

국제보호지역의 관광 관리자가 직면한 네 번째 과제는 야생 동물 보호이다. 야생 동물 보호의 심각성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야생 동물을 포획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2018년 IUCN의 '보호지역에서 관광 및 방문객 관리 보고서(Tourism and Visitor Management in Protected Areas Report)'에 따르면, 야생 동물 보호 과제는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가 가난한 지역사회에 사회적 및/또는 경제적 혜택을 도입함으로써 빈곤한 지역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보호지역에서 야생 동물 보호 사례로는, 보츠와나의 람사르습지인 오카방고 삼각주(Okavango Delta)를 들 수 있다. 2014년 보츠와나 정부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사냥을 금지하고 지정된 사냥터를 사진 촬영지로 변모시켰다. 오카방고 삼각주 지역주민의 양보로 사진 촬영 관광에 집중하고, 사냥 수익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였다.

자연 자산 상품화 대(vs.) 보전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가 직면한 다섯 번째 과제는 자연 자산 상품화 대 보전의 문제이다. 관광은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보호지역의 자연 자산을 보전하기보다는 이를 이용한 관광 수익에 더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연 자산을 상품화하여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국제보호지역의 많은 관광 관리자에게 심각한 도전이지만, 또한 관리자가 국제보호지역의 가치를 보여주는 역동적 해설 경험을 통해 자연과 문화 보전을 위한 지원을 유도할 기회이기도 하다. 자연 자산을 상품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보전을 우선시하는 한 가지 사례로, 샴플레인-애디론댁(Champlain-Adirondack) 생물권 보전지역의 일부인 애디론댁 하이 피크(Adirondack High Peaks) 봉우리(미국 뉴욕 소재)를 들 수 있다.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 연간 800만~900만 명으로 추산되자, 하이 피크 지역의 사회적 및 환경적 수용력(carrying capacity)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뉴욕주 환경보전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애디론댁 산악 클럽(Adirondack Mountain Club)은 탐방로 입구와 산 정상에서 환경 지킴이 교육을 진행하는 '트레일헤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Trailhead Stewardship Program)'과 '서밋 스튜어드십 프로그램(Summit Stewardship Program)'을 도입하여 등반 전(탐방로 입구)과 후(산 정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반 윤리에 대해 교육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고품질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경험하는 동시에 목적지 환경의 관리/보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결론 및 코로나의 교훈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는 보다 회복탄력적인 생태관광 모델 구축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습한 경험과 국제보호지역의 생태관광 개선에 필요한 네 가지 교훈으로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격동의 시기에는 의사소통과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기에, 협업 및 통합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둘째, 회복력이 가장 큰 국제보호지역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탄탄한 기획, 관리 및 모니터링을 망라하는 총체적 생태관광 개발 접근법을 준수한다. 셋째,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가 목적지 주변 지역사회, 관광 생태계 전반, 방문객 경험 전체에 걸쳐 인간과 생태학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예: 가상 현실, 홀로그램, 가상 투어 등)는 국제보호지역 관광 관리자가 환경 교육, 보전 및 선진 모니터링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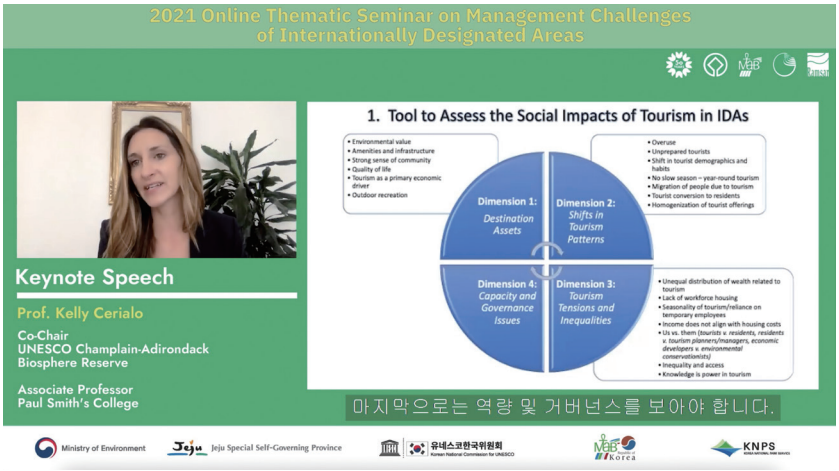
참고문헌

Epler Wood, M. (2002). Ecotourism: Principles, practices, and policies for sustainability.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9045/-Ecotourism_Principles,PracticesandPoliciesforSustainability-2002518.pdf?sequence=2

Leung, Y., Spenceley, A., Hvenegaard, G., & Buckley, R. (2018).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s Tourism and Visitor Management in Protected Areas Report. Retrieved from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PAG-027-En.pdf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015). What is ecotourism? Retrieved from https://ecotourism.org/what-is-ecotourism/

UNWTO Tourism Data Dashboard (n.d.). International tourism and Covid-19. Retrieved from https://www.unwto.org/unwto-tourism-dashboard



질의 응답

질문 1: 생태관광과 보호지역의 과잉 소비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발표자: 균형은 총체적인 관리 전략과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질문 2: 프랑스에서 제조업체가 피해 지역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기타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발표자: 이상적으로는, 지역 제조업체가 피해 지역의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을 위해 자금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질문 3: 생태관광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면서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기대이익을 과도하게 판매하지 않도록 어떻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경험에 비추어 설명 부탁드린다. 국제보호지역 내 생태관광 지원 측면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종류의 논쟁에 가장 잘 반응하는가? 물론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경제적 이익 또는 보전 이익에 대한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가?

발표자: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많이 다르다. 자원이 허용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여,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관광업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

는 것에 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장 잘 반응하는 주장이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의 입장과 요구를 평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일단 알고 나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과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그룹은 경제적 이익에 가장 잘 반응하고 다른 그룹은 보전 이익에 반응한다.

질문 4: 코로나 시대에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국제보호지역을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

발표자: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제보호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및 국제보호지역과 주변 경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그러면, 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잠재적으로 추가 자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제보호지역의 모범 사례 및 지침을 공유하여 해당 지역 관리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례발표 1.
베트남 깟바 생물권보전지역

레 탄 투옌
노스햄프턴대학교 사회혁신 및 영향 박사과정

베트남 하이퐁시(Haiphong City)의 깟바 군도에 위치한 깟바(Cat Ba) 생물권보전지역(BR)은 관광을 통해 경이로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깟바 군도는 국내 및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명성을 얻어 왔다. 예를 들어, (1)국립공원(1986), (2)생물권보전지역(2004), (3)세계지질공원 신청(2007), (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실(2009), (5)가장 많은 관광 명소가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기록(2014), (6)해양보호구역(2010), (7)석회암 군도 중 가장 큰 주요 열대 몬순림(2011); (8)군도 중 가장 큰 맹그로브 숲 (2011), (9)가장 많은 해양 호(marine lake)가 있는 군도 (2011), (10)국가 명승지 (2012), (11)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섬과 작은 섬이 있는 군도 (2012), (12)동남아시아 최대의 석회암 섬 (2013), (13)국가 특별 기념물 (2013), (14)민물 게 종 수가 가장 많은 섬 (3/8 종), (15)PSSA 지정 (2015), (16)세계 유산 신청(2011, 2016, 2021), (17)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중 하나로 선정된 란하만 (Lan Ha Bay)(2020)(Cat Ba Biosphere Reserve, 2021) 등이 있다.

깟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관광객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열대 생태계 유형을 경험할 수 있다: i) 베트남 최대 석회암 섬에서 원시 열대 몬순림, ii) 갯벌 조수(tidal) 생태계, iii) 산호초, iv) 해양호(전 세계 해양호 중 1/3), v) 연성저질 생태계(soft bottom ecosystem), vi) 동굴(작은 동굴) 생태계(특히 물이 있는 어두운 동굴), vii) 맹그로브 생태계이다. 게다가, 114종의 IUCN 멸종 위기종, 73종의 고유 동물, 20종의 고유 식물을 포함하여, 총 4,637종의 육상, 담수, 연안 및 해양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Cat Ba Biosphere Reserve, 2021).

생태관광 활동의 경우, 깟바 국립공원과 현지 기업 및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깟바 생물권보전지역의 3대 구역에 걸쳐 개발하였다. 깟바 국립공원 내 주요 생태관광지로는 킴자오 숲(Kim Giao Forest)~응에람 봉 트래킹(1.5km), 쭝짱 및 위반 동굴(1.2km), 국립공원 사무소~아오

에흐~비엣하이 트래킹(14km: 트레킹 및 도보), 란하 만(보트 및 카약 2시간) 및 국립공원 사무소~아오에흐(개구리 연못 분화구: 편도 2~2.5 시간)을 즐길 수 있다(Cat Ba Biosphere Reserve, 2021). 깟바 생물권보전지역의 일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생태관광 모델도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푸롱 마을 홈스테이 생태관광(Sails of Indochina – Lan Ha Bay, 2017), 비엣 하이 마을 홈스테이(VietHai tour, 2021), 히엔 하호 마을 생태-캠핑 등이 있다(Du lich Cat Ba, 2018).

아직 개발되지 않은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깟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 생태관광은 수용력, 야생 동물 보호, 산림 및 수자원 소비, 쓰레기 및 하수, 전통 가치 보전, 기후 변화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깟바 국립공원(Cat Ba National Park)은 전형적인 베트남 보호지역으로서 여전히 자원이 부족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며 생태관광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서비스 또한 전문적이지 못하다(Vân, 2020). 본 발표에서는 생태관광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깟바 생물권보전지역 지원 노력을 모을 수 있는 생태관광협회의 공식 설립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Cat Ba Biosphere Reserve. (2021). Biodiversity of Cat Ba Biosphere Reserve. http://catba.net.vn/biodiversity/?lang=en

Cat Ba National Park. (2021). Trails and Activities in the Park. https://catbanationalpark.vn/cat-ba-national-park-6

Du lich Cat Ba. (2018). Hien Hao Camping site. https://www.facebook.com/catbatravels.vn/photos/pcb.605500203182164/605499359848915

Sails of Indochina – Lan Ha Bay. (2017). Mangrove Forest & Thien Long Cave Discovery – Ecolife Authentic Homestay in Phu Long Village. http://www.sailsofindochina.com/en/blogs/mangrove-forest-thien-long-cave-discovery-ecolife-authentic-homestay-in-phu-long-village/

Vân, N. T. (2020). Policy 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ourism in Vietnam's National Parks and Nature Reserves. Institure for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https://doi.org/10.1016/B978-0-323-60984-5.00062-7

VietHai tour. (2021). Viet Hai Tour. https://www.facebook.com/photo?fbid=3075842252455267&set=pcb.3075844522455040

질의 응답

질문 1: 많은 지역이 현지 여건에 따라 생태관광의 스타일이 뚜렷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부는 더 많은 '야생' 또는 활동, 또는 지역사회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베트남 스타일의 독특한 생태관광이 있는가? 다른 국제보호지역도 그러한 접근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 깟바의 생태관광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GO/연구 기관 주도 모델과 및 깟바 국립공원 외부의 지역사회 주도의 실용적인 모델이 혼합되어 있지만,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태관광' 접근법을 아직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정부는 현재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관광 정책을 개정하고 있다. 깟바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살펴보면, 우리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진정한 지역 소유자이자 생태관광 소유자로서 생태관광을 공유하고 개발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발표 2.
탄자니아 응고롱고로 렌가이 세계지질공원

므완쿤다 죠슈아
응고롱고로 보전지역 관리기구, 문화유산 및 지질공원부 관리자

기회, 과제 및 향후 방향

북부 탄자니아에 위치한 응고롱고로 보전지역(NCA: Ngorongoro Conservation Area)은 NCAA(응고롱고로 보전지역 관리기구) 조례 413호에 따라 자연 및 문화 자원의 보전을 촉진하고, 지역 원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관광을 증진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되었다. 자연, 생태, 야생 동물, 선사 시대 및 현대 고고학과 고-인류학적 특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응고롱고로 보전지역의 경관을 보호 중이다. 또한 이 지역은 8,292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간 정착지와 통합되어 있다 (Mwankunda, 2020).

응고롱고로 보전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혼합유산지역 및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마사이족(목축업), 타토가족(최소한의 작물 재배 및 목축업), 하자베족(수렵과 채집)의 세 부족 약 9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한 매년 7십만 명이 방문한다.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워킹 사파리(walking safaris), 현지 주민들이 제공하는 야생 캠핑, 기념품으로 현지 수공예품 판매, 양봉 체험 및 현지 고품질 꿀 판매, 문화생활 및 춤과 같은 전통 체험 쇼케이스는 모두 이 지역 생태관광에 포함된다.

응고롱고로-렌가이(Ngorongoro – Lengai) 세계지질공원 생태관광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 피복도 손실과 목초지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가축 및 야생 동물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문제로는 방문객과 상호 작용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문화가치의 상실, 점점 더 많은 문화적 관행의 상품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경우, 보호지역 내 다른 경제 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빈곤 주민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목축 경제

의 쇠퇴와 생태관광 재정 수입이 지역사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응고롱고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혼합유산지역, 응고롱고로 렌가이 세계지질공원을 관리하는 응고롱고로 보전지역 관리기구(NCAA: Conservation Area Authority)는 현지 주민들이 보호지역 밖으로 이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생태관광의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도 다른 경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보전 요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최적의 혜택을 달성하기 위하여, NCAA는 또한 보전 교육을 강화하고 다목적 토지 이용 모델 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사례발표 3.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김나미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 사무국 연구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제주도는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고도에 따라 아열대, 난대, 온대 및 아한대 등의 기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태계 구성이나 생물종이 매우 다양하다. 제주도는 이러한 독특하고 다양한 동·식물종과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2년, 해발 200m 이상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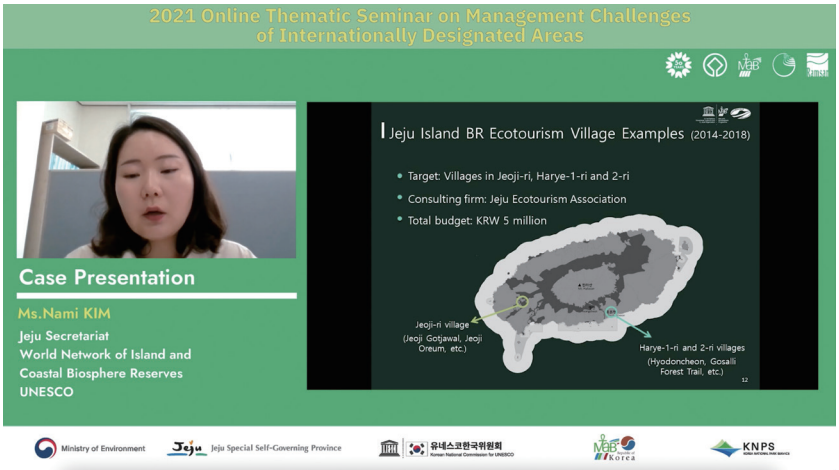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외 지역의 곶자왈,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도내 생산물의 브랜드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안선에서 5.5km 이내 해양구역까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제주도는 지역사회가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의 사업이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제주도는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도 전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에 5년간 2억 5천만 원씩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4년 저지리와 하례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저지리와 하례리 마을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행정, 생태관광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마을 내 생태관광 자원조사, 주민교육 및 해설사 양성, 생태자원 모니터링,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활용 등 컨설팅 자문을 통해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하였다. 저지리와 하례리 마을 대상 지원 사업은 2018년으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하례리와 저지리 마을에서는 사업을 통해 자연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호근동과 평대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태관광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주민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되며 향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Speeches and Presentations

Opening Ceremony — 29 September 2021 (Wednesday)

Opening speech

Mr. Kyung-Sam Moon, Director Genera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Dr. Kyung Koo HAN,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Mr. Byung-Kwan HYUN, Secretary-General of the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reparing today's event. And I welcome each of you being with us from all around the world online.

As some of you may already know, Jeju Island is the only province across the world listed as an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 (IDA) under four separate categories: Biosphere Reserve in 2002, World Natural Heritage in 2007, UNESCO Global Geopark in 2010, and five Ramsar Sites from 2006 to 2018.

This seminar aims to enhance the capacities of the managers to manage IDAs at each designated purpose, as a pilot project of th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CIDA),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2022 in Jeju Isl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working on the GCIDA since 2012 as a follow-up of IUCN WCC in collaboration with the IUCN, UNESCO, Ramsar Convent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process essenti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e is driven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e anticipate opening the centre next year as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ESCO concludes within this year.

IDA managers, especially managers who participate abroad, will be able to experience four IDAs of Jeju through the training programme provided by the

GCIDA. Therefore, we appreciate your ongoing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GCIDA.

I hope this seminar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upgrade your IDA management capacities by sharing good practice cases and experiences throughout three days in three main themes: invol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communication strategy, and ecotourism in IDAs.

Lastly, I wish everyone to create a close network and periodical communication among all the participants an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IDAs worldwide.

Opening Ceremony

29 September 2021 (Wednesday)

Opening speech

Dr. Kyung Koo HAN,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 would like to welcome you all to this 'Onlin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organized jointly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which include World Heritage Sites, Biosphere Reserves, UNESCO Global Geoparks, and Ramsar Sites, have a growing role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result, managers of those areas face ever more complex challenges in how to increase the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ies, how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visitors and the general public, and how to promote ecotourism.

Throughout the seminar, we will hear from three keynote speakers and nine case-study presenters, each of whom will share their professional insights and experience in dealing with such challenges, making this seminar a valuable learning opportunity for us all.

As you may already know, this seminar has been organized as a pilot project of th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which will be opening in 2022 as a UNESCO category II centre in Jeju. A major part of the role of the centre will be to help enhance and develop capacities for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and I greatly hope that you will all continue to stay up to date with how the centre can help in this regard,

and work with the centre to ensure that it can help you as much as possible.

I would like to end by thanking each of you again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and I hope to see you again at a face-to-face seminar in the near future.

29 September 2021 (Wednesday)

Theme 1: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y in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Keynote Speech

Dr. Ishwaran Natarajan,
Executive Head, Deep-time Digital Earth (DDE) Centre (Former Director,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UNESCO)

Introduction

The 2021 onlin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DAs)" is being convened at a time when hopes for a sustainable recovery of economies and societies from the 18-month long, COVID-19 caused devastation are on the rise. The pandemic froze international travel and face-to-face encounters in conferences, seminars, and comparable events, within 6-months after the approval by UNESCO, in November 2019, of th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GCIDA)" in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last 18 months, the pandemic has limited communication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management of IDAs.

The emerging post-COVID-19 era could provide a new beginning for establishing baselines for data on several aspects of management of IDA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IDAs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GCIDA is well placed to design, develop and implemen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da for research and training on involving local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IDA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explore the main contours of such a GCIDA-le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DAs)

This presentation will address those IDAs that are global, and not regional (e.g., Europe) or sub-regional (i.e., ASEAN Heritage Parks). GCIDA mandate concerns only the following four global IDAs:

- World Heritage sites: 1154 in 167 countries, of which 897 are cultural, 218 natural and 39 mixed (both cultural and natural). Herein only natural heritage sites will be considered;
- Biosphere Reserves: 714 in 129 countries;
- Ramsar sites: 2424 in 170 countries; and
- Global Geoparks: 169 in 44 countries

There are a few land/seascapes in the world, such as the Jeju Island which hosts GCIDA, where all the 4 IDAs are found; each of the 4 IDA in Jeju cover areas that totally or partially overlap with one anoth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amsar (1971) and World Heritage (1972)) and Programmes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s (1971)) that designate Ramsar, World Heritage sites and biosphere reserves, respectively, have either commemorated their 50th anniversaries in 2021 or will do so in 2022. UNESCO Global Geoparks was created in 1998. All sites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UNESCO. Global Secretariats of World Heritage, biosphere reserves andGeoparks are hosted by UNESCO, Paris. The Secretariat of the Ramsar Convention is in Gland, Switzerland; but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adherence to that Convention by the UN Member States are deposited with UNESCO.

Evolu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gendas

The local communities'-management relationships of the four IDAs are context-specific. The first Earth Summit, i.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convened in Rio de Janeiro, Brazil, in 1992, began a shift away from a place and species-specific initiatives to upstream, policy-driven conventions and agendas. The three Conventions adopted in Rio in 1992, namel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UN Convention on Combating Desertification (UNCCD),

respectively, and Agenda 21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e to all development sectors and multiple governance scales (provincial, municipal, city, etc.).

In the post-1992 era, integration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had become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e., to harmoniz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trajectories of change faced by communities. Global Geoparks integrated the development needs of local communities into their design and management requirements from the time of their conceptualization in 1998. The other three IDAs, whose design and conceptualization date back 20-years before the Rio-summit, underwent varying degrees of adaptation to the post-1992 cal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amsar sites, i.e., wetlands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for migratory birds were not restricted to legally protected areas. Biosphere reserves, built around a legally protected core-zone of biodiversity significance, required the definition of surrounding buffer and transition zones for conservation-friendly development experimentation benefiting local communities. World Natural Heritage, originally modeled on US National Parks, had to strive harder to adapt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emands of local communities. The first-ever World Natural Heritage site whose management was solely based on community-based norms and practices, without the guarantee of national protected area legislation, i.e., the East Rennell Island of Solomon Islands, was includ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only in 1998.

Since 1992,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has evolved and matured into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dopted by the UN in September 2015. The 17 SDGs include specific ones dedicated to life in oceans (SDG 14) and land (SDG 15); efforts to combat harmful climate change (SDG 13); emphasize sustainable use of water (SDG 6) and energy (SDG 7) for growth and development; food security (SDG 2), good health (SDG 3), quality education (SDG 4) and decent work (SDG 8) indispensable for human wellbeing.

Local Communities, IDAs and Delivering on SDGs

UNESCO strategies have encouraged the Member States to use IDAs as experimental and learning sites for elucidating ways and means of delivering

SDGs at local,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ales. The term “local communities” embraces an immense variety of people who live within and in surrounding regions of IDAs. It includes aboriginals who claim traditional ownership of territories in Australian World Heritage sites; indigenous, rural, or urban societies that are part of core, buffer, and transition zones of biosphere reserves. Ramsar Wetlands have a similar variety of populations; at the 13th Conference of Parties (COP), the Ramsar Convention introduced the Wetland City Accreditation and recognized 18 cities for safeguarding wetlands; 11 of them, including Jeju, Inje, and Changnyeong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sian cities. As noted earlier, Global Geoparks integrated the needs of resident communitie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ir design and conceptualization.

The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industry has been a mainstay of the management of a large number of IDAs to generat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o local communities. Tourism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over-tourism” had been identified as important threats to several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However, tourism-dependent income generation has helped broader rural, regional development, rais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 youth, facilitated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linked to lifestyles, music, and cuisine, and attrac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volunteers, academics, and professionals to engage with the management to launch projects and initiatives benefiting communities.

In IDAs that are remote and inaccessible, particularly in Central and parts of West Africa, and some Pacific Islands nations, developing sustainable tourism initiatives had failed, and local communities often continue to depend on fisheries, agriculture, forestry, and in some cases even on extractive industries such as mining to meet their livelihood need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e., construction of roads, highways, bridges, and hydro-, wind, solar, and other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is considered to be of critical importance by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their future sustainability. The extent to which infrastructure development’s needs could be met and their negative impacts mitigated varies from one IDA to another. In general, opportunities for finding compromises betwee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re greater in global geoparks, biosphere reserves, and Ramsar sites;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mandate to protect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ten renders working out such compromises a more complex and time-consuming endeavor.

The COVID-19 impact on international travel, the fears it has raised about the potential for infections from wild animals, and the obligatory social-distancing and other safety measures have already taken a heavy toll on tourism-dependent conservation areas, including IDAs. The 4 categories of IDAs in East Africa, selected South Asian nations such as Nepal, Maldives, and Sri Lanka, and others in Southeast and East Asia that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new, "rich" Chinese tourists have been hardest hit. IDAs in China, the US, and Western Europe that primarily depend on domestic/regional tourism will probably recover faster than others during the post-COVID era. Places that suffered from "over-tourism" are enjoying a brief moment of calm to re-orient visitor management and related hospitality sect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ong sustainable trajectories. However, in IDAs where alternatives to tourism-linked income generation are few, management will face greater challenges enabling local communities to deliver on SDGs which they consider to be a priority.

As we adapt IDA management to enhancing the wellbeing of local communities in the post-COVID era,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that could support evidence-base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between management and local communities will be of critical importance. Training of managers, administrators, local community leaders and other stakeholders on their roles in developing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s between management and communities must derive from real-life case studies and sharing of lived-in experience. Context-independent, abstract theories, conceptual models or well-intentioned but untested scenarios originating in far-away capitals and seats of power are unlikely to help the development of such partnerships.

A GCIDA Led Research and Training Agenda on Local Involvement in IDA Management

The current moment of hopeful emergence from the constraints of the

pandemic for international travel and events organization and the newly found enthusiasm for online communications and dialogue could help GCIDA to initiate data gathering on the status of local communities in and around IDAs without any further delays. The first steps could focus on the literature review of local community-management relationships that are specific to IDAs, both before the pandemic struck and their evolution since early 2020, when the impacts of the pandemic were being felt throughout the world. Bibliometric and allied research tools now allow the analysis of vast volumes of published literature to identify major focus areas of research in the past and those that are emerging as important directions for the future.

Online and hybrid, i.e., a mix of face-to-face and online, communications are likely to become the new-normal in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ubject to reliable digital infrastructure and links, convening expert consultations, technical workshops to share data and research results, and direct, online communications with field personnel and local communities resident in and around IDAs are feasible. A combination of desk-research and online/hybrid workshops, conferences, and other events could already begin to document the status of management-local community relationships just prior to the on-set of the pandemic and its evolution since then as a new baseline for future research, training, and monitoring initiatives.

Even if the total eradication of the virus and its variants becomes a reality within the next 1-2 years, international travel patterns and destination preferences could change based on other factors: for example, tourists may choose to visit places closer to home to reduce their carbon-footprints. IDAs whose management was heavily dependent on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s must use the pandemic-experience to diversify their sources of income. The potential of linking land use and land-use change-base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options in buffer and transition zones of IDAs to enable local communities to deliver a context-specific mix of SDGs as a contribution to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s needs further exploration and experimentation. Climat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under the UNFCCC have become the prime driver of journalistic,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s. IDAs could be instrumental in linking such interests to that of CBD and UNCCD through the place, people, and context-specific initiatives that enable IDA management to deliver SDG priorities chosen in consultation with local communities.

GCIDA may consider following up on this initial online thematic seminar, with a series of workshops to design a research and training agenda for "local community involvement in IDA management" that aim to SDGs prioritized jointly by management and communities. 2021 marks the beginning of the last ten years of the UN 2030 agenda to deliver SDGs. UNESCO strategies emphasize and encourage IDAs to serve as experimental and learning sites for the UN Member States to deliver on SDGs as part of the UN 2030 agenda. A GCIDA led research and trai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 on "local communities, IDA management and SDGs" could be a timely next step to synchronize globally with people and place-specific realities. As a UNESCO Category 2 Centre, GCIDA is likely to attract widespread support and collaboration from other UNESCO Category 2 Centres, both in Asia and from elsewhere, as well as other bi-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in this worthwhile endeavor.

Case Presentation 1.
Itoigawa UNESCO Global Geopark, Japan

Mr. Theodore Brown,
Project Manager, Itoigawa Geopark Council
(Itoigawa UNESCO Global Geopark)

Engaging & Empowering Comm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te Management and Education

Itoigawa UNESCO Global Geopark covers the entire area of Itoigawa City, located in Niigata Prefecture on the northwestern coast of Japan. In 2009 it became Japan's first Global Geopark, with three major themes: Formation of an island arc along with a plate boundary (Itoigawa-Shizuoka Tectonic Line), the world's oldest jadeworking culture, and the border between Eastern and Western Japanese cultures.

The project to create a Geopark in Itoigawa began with three goals: to protect local geological,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nurture new generations of sustainably-minded citizens through geostudies; and to develop a sense of unity and pride for the local people. To achieve this goal, an emphasis was placed on community involvement from the beginning. This has been achieved through meaningful inclusion in the Geopark management structure, regular and multilateral communication, the adaptation of existing networks and structures, as well 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Geopark Studies.

This presentation provides concrete examples of how this approach is implemented within the Itoigawa UNESCO Global Geopark and how it has benefited the Geopark and the local communities.

Q&A

Q1: Do you mean National Education Policy or just only in the city of Itoigawa?

Presenter: The Geopark Studies Educational Policy is a local policy that we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the Itoigawa City Board of Education. It is an independent local policy, not a national one.

Q2: What were the main challenges that you faced when trying to involve the local communities?

Presenter: A pressing problem in many rural communities in Japan, including Itoigawa, is one of motivation. Many of these communities are very small and have an elderly population, so they aren't always open to new concepts. But many have a sense of pride and belonging to their communities, and they are active in the local community centres. So we try to use these community centres and the existing networks within their communities in order to engage with them in Geopark Activities.

Case Presentation 2.
Hong Kong UNESCO Global Geopark, China

Ms. Yu Nam Chan,
Head, Hong Kong UNESCO Global Geopark,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Most of the remote villages and communities in Hong Kong experienced a sharp population decline in the 1960s and 70s, as the villagers moved to the urban area or emigrated overseas. Now, many of the communities are almost deserted, with only a few elderly villagers remaining.

In 2017, Hong Kong Geopark started the “Same Roots, Same Origins” project, which involves actively approaching the local communities to learn about their history, culture, heritage, and stories, mainly through oral history interviews of both local and overseas villagers and then recording and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into “story rooms” and publications to help promote and conserve the heritage of the local geopark communities. The “stories” are also useful resources for education and green tourism.

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workshops on management and presentation skills have been provided for the local communities to empower them to operate their own “story rooms” and explain their culture and traditions. For visitors, the personal interpretation in the form of villagers telling their own stories is more interesting than an outsider explaining them. For the local communities, managing their own story rooms and promoting their communities have increased their sense of belonging. As a result, the story rooms have been well received by both the local communities and visitors and have helped promote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ocal villagers are important partners of Hong Kong Geopark. As far as reasonable and practicable, Hong Kong Geopark offers them help in the form of direct assistance or through liaison with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or organizations. For example, after a super typhoon struck Hong Kong in 2018, we organized volunteers to help clean up, deliver essentials and liaised with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utility companies to remove fallen trees, repair damaged footpaths, and resume electricity supply. During the pandemic, at the request of individual villages, we produced banners reminding visitors to wear mask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Hong Kong Geopark. They have organized various education activities and promotions and assisted i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tourism by designing and organizing trial tours and providing training for local communities and tour guides. One of the NGOs, the Association for Geoconservation, Hong Kong, established the “Recommended Geopark Guide” system, in partnership with Hong Kong Geopark and the Travel Industry Council, to ensure high-quality interpretation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geopark guides.

A few sponsors have been very supportive of the work of Hong Kong Geopark. Their valued funding support, most importantly, allows flexibility for individual projects. They also co-manage projects and offer technical advice, such as restoration work for the story rooms.

Q&A

Q1: Are there institutions/policies for local involvement in designated areas/ Geoparks in Hong Kong?

Presenter: There are no exact rules or policies. However, we follow the GGN guidelines such as the 'bottom-up' approach or trying to benefit the local people, communicating, letting them understand the geopark concept, and trying to benefit the community. So as far as it is practical and feasible, we try to work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assist them.

Case Presentation 3.
Yeoncheon Imjin River Biosphere Reserve / Hantangang UNESCO Global Geopark, Republic of Korea

Ms. Miyoung Kwon,
CEO, Yeongangsoolsool Hyoyeonjae

Yeoncheon GeoEco Network(YGEN) consists of 10 members, from cultural artists, entrepreneurs, students, civic activists, farmers, and residents living in Yeoncheon, Gyeonggi-do (province).

The members of YGEN learn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designated as the 'Yeoncheon Imjin River Biosphere Reserve (BR)' and 'Hantangang Unesco Global Geopark (UGGp)' and study the precious history of Yeoncheon, which lead to continuing diverse activities of YGEN members to preserve nature and pave the way for a beautiful coexistence of nature and people.

When the area was first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the residents of Yeoncheon, including the members of YGEN, did not recognize what BR and UGGp meant.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e BR seminars, forums, and sustainable Hantangang UGGp seminars, as well as field training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Yeoncheon-gun, which provided the opportunity to take a look around our life and environment.

The members installed the 'frog ladder' learned from the seminar around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area and the water spider habitat, followed by periodic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The 'frog ladder' project motivated the members of YGEN to watch the frogs utilizing the ladder in an emergency, which led the members to study further and continue other activities in environment protection.

The members were proud when they investigated and discovered endangered species such as Seoul-frog and Spotless-tree-toad in Yeoncheon.

The members further promoted geological prospecting to various places, such as the civilian access control line around Yeoncheon, and learned about the area they live in together by discovering different types of stones.

The seminar also provided a lecture from Dr. Nial Moores, a director of Birds Korea,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rds and nature, which motivated the members of YGEN to go on bird exploration to make a bird map of Yeoncheon. This bird exploration project induced the local members to watch over nature in their daily routine. As a result, the members of YGEN were awarded twice by Korea Network for River and Watershed for their outstanding results in the simultaneous monitoring of summer and winter migratory birds.

Some of the members are involved in the project 'Korean Heritage Guardians,' suppor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eliminate the flora disturbing the ecosystem in water spider habitats.

In addition, members took charge of each local attraction's commentary in the video series of 'Yeoncheon Walking Tour' to promote the beautiful scenery of Yeoncheon.

The members continued the geopark tour to the students by learning BR and UGGp in relation to Yeoncheon. The members extended their education and tours to the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contributed to the local cleansing activity.

Residents brought up some different questions or concerns when Yeoncheon was first designated as BR and UGGp, such as "What is BR?" "What does core area mean?" or "Would not this designation be regulating and inconvenient for us to farm?"

Members responded to the residents by sharing experiences on bird watching and frog ladder as YGEN to draw the understanding among the local community.

The members of YGEN are proud of being able to spread positive influences through various activities in BR and UGGp.

In November, YGEN is preparing a project to plant the indigenous flora of Yeoncheon, such as reeds, silver grasses, pearl millets, and cattails, around the river where the area is occupied with flora disturbing the ecosystem.

These experiments from daily life become engaging entertainment to YGEN members. Recently, the members taught Sun-woo, an elementary student among YGEN members, how to use a telescope when watching birds and looking for fireflies together in our BR and UGGp area, which is thrilling in the sense that the members are contributing to a better world for our next generation.

The YGEN members hope for continuous education and seminars to be provided so that all residents of Yeoncheon could talk about BR, take more interest in UGGp, and contribute to UNESCO activities together.

30 September 2021 (Thursday)

Theme 2: Communication Strategy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Keynote Speech

Prof. Kyung-Sik Woo,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Ge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ir, IUCN WCPA
Geoheritage Specialist Group)

Introduction

Geology deals with the history of the Earth, including physical processes and their products (physical geology) as well as the evolution of life forms (historical geology). In a broader sense, geology (earth sciences) includes marine environments (marine geology) or landforms and landscapes (geomorphology) and their ongoing processes. Since the formation of the Earth about 4.6 billion years ago, there are too many hidden stories about geological processes for the general public to get interested in. Various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elements in a given area are called geodiversity. High geodiversity areas may have a high potential for geo-education, but it does not necessarily imply a high potential for nature conservation. If any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sites have significant value for intrinsic, scientific, educational, cultural, aesthetic, and ecological elements and therefore deserve conservation for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s, they are called geoheritage sites. The size of geoheritage sites can vary from a small outcrop to even huge mountain ranges depending upon their geological attributes.

Among numerous international programmes and organizations in the world, there are very few for geoheritage conservation. UNESCO has three programmes for nature conservation. Among them, World Heritage and Global Geopark

programmes concerned with geoheritage conservation. However, these two programmes have some limitations becaus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should display a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UNESCO Global Geoparks should contain any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sites (geosites)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and should include good programmes for geoconservation, geotourism, and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Geotourism plays a key role for both programmes.

Geotourism is a form of natural area tourism that specifically focuses on geology and landscape. It promotes tourism to geosites and the conservation of geodiversity, and an understanding of earth sciences through appreciation and learning. This is achieved through independent visits to geological features, use of geo-trails and viewpoints, guided tours, geo-activities, and patronage of geo-site visitor centres (Newsome and Dowling, 2010). Hose (2012a) outlined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geotourism and approaches to its sustainable development. He suggested that it was underpinned by three key interrelated aspects of modern geotourism, such as geoconservation, geo-history, and geo-interpretation. Later the concept of geotourism was changed to embrace a wider remit than just geological components by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in the USA; that is, it includes a range of niche forms of tourism such as cultural tourism and ecotourism.

Following on from th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geographic version of the definition but for the first time included in it the term geology. It was finally agreed by most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ies that geotourism should be defined as tourism that sustains and enhances the identity of a territory,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geology, environment, culture, aesthetics, heritage, and the well-being of its residents (Dowling and Newsome, 2018). This means that the concept and the objectives of geotourism became almost the same as those of geopark.

Geotourism should always include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geological and broader environment so that the tourist learns about the site they are visiting. Geological education (geo-education) comprises the specific interpretive aspects of geotourism consisting of the development of specific

pre-visit and on-site pamphlets, leaflets, films, etc.; viewpoint and the on-site associated interpretive panels; geo-trails with proper infrastructures if necessary for visitor safety; guided tour programme and visitor centre with audio-visual contents, interactive displays collections of rocks, film shows and regular lectures (Migoń., 2018). To maintain and achieve sustainable geotourism it is also required to carry out appropriate planning, geo-conservation of resources and sites: efficient interactive interpretation, tourist satisfaction, and sustainable community benefit.

Interpretation is intimately linked with geotourism, particularly if the distinctiveness of geotourism among other types of tourism is expected to reside in the emphasis on learning and understanding rather than in mere aesthetic appreciation of rocks and scenery (Dowling and Newsome, 2005; Hose, 2012b). At the same time, however, providing successful interpretation facilities is the biggest challenge that geotourism stakeholders are facing. Newsome et al. (2013) considered the following as major techniques in delivering interpretation: publications and websites, electronic educational resources, visitor centres, self-guided trails with associated interpretation infrastructure, and guided touring. However, given the strong outdoor component of geotourism and the value of direct interaction with the subject (rocks, mineral, scenery, geological and geomorphic processes in action, etc.), Piotr (2018) suggested that these techniques may be divided into four major groups: (1) permanent interpretative facilities on site which are available to tourist at any time such as information panels; (2) portable interpretative tools such as guidebooks, brochures, smartphone applications; (3) off-site facilities which may be used and consulted prior to and after a geo-trip, including the visitor centre, museum, and exhibition, but also dedicated website; (4) direct interactions with a guide, typically during a guided outdoor walk.

It has not been successful in achieving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visitors through most interpretation facilities in many countries because managers of protected areas (usually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many countries) are not well aware of geological knowledge and are only concerned with an ecosystem of biodiversity, So-called scientific experts are not familiar with the concept of

educational tourism and rarely have had a chance to learn the approach how to make the contents for interpretation panel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Migoń (2018) also noted several additional reasons for this. First, geoheritage (as well as most geological and/or geomorphological information) is often considered a difficult subject and of interest to a minority of visitors. The general public has far less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earth science than either biodiversity or ecosystem. Second, there may be a communication gap between local stakeholders and academic circles who refrain from engagement in local affairs whilst also speaking their own, too-technical language. Visitors tend to neglect too scientific information. Third, interpretative facilities may be costly to build and maintain, with sources of funding not always obvious, even inaccessible. Fourth, there may be a shortage of qualified manpower, especially in remote areas, to run interpretative facilities. Fifth, in exposed areas, a particular decision may be made to interfere with the natural scenery through the erection of panels and information boards. This presentation deals with the approach methods for interpretation panels and visitor centres for effective educational tourism.

Tourism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self-guided tour, guided tour, mass tour with or without guides. Mass tourism is commonly a serious problem for educational tourism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A guided tour may be the best way to carry out educational tourism; however, it is not simply possible due to too many visitors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in many Asian countries. To overcome this, special methods may be developed for mass tourism. One of the methods to achieve effective educational tourism for self-guided tourists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infrastructures such as interpretation panels and efficient interactive displays in visitor centres. This paper deals with these two aspects as below.

Interpretation Panels

The main advantage of the interpretation panel is its permanent availability for those who wish to learn more. Thus, interested tourists do not require any further portable interpretative equipment to accompany an educational trail, whilst unprepared or accidental visitors may enjoy access to information not

available at short notice elsewhere. As far as the theme is concerned, two kinds of panels can be shown. One type provides information about many different objects, not necessarily related to one another either causally or geographically. Vantage points along the road to entrance points of any tourist site are typical locations of panels of this kind. Such an approach may be justified, but the requirement is to clearly separate these different subjects in graphic design. The other type is more focused on one particular where the attention of visitors is directed to the specific subject (Migoń, 2018). Various basic concepts are listed for the latter type as follows:

1) General rules

- Do not show what stakeholders and specialists intend and want to show, but only show what visitors want to know.
- he theory of KISS (Keep It Simple, Stupid!): Is the information too much in a single panel? Too much amount of information in the form of the text or graphical design is probably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ssues. This is definitely not a good and efficient way of delivering intended messages to tourists.
- The rule of three seconds: Visitors will decide whether to read or not within 3 seconds. If they were not happy with the contents (too difficult, too complicated or too much) they would not read.
- Who are the targets? Categories of visitors are vastly different and it is hardly possible to provide one interpretative product for everyone (Dowling, 2011). In the case of Korea, the 4th-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re good because they start to learn about geology and rocks.

2) Contents

- Is the title of interpretation panels attractive enough?
- Are the contents too difficult? Information may be provided in a language that is too specialized to attract the attention of a casual visitor. Also, extensive discussion of features not seen from the in situ spots should be avoided (Migoń, 2018).
- Are there enough photos or illustrations in the panel? Visitors must easily relate the content of the panel to the features the panel displays. Thus, simplified

drawings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of the objects can be very useful. Other additional photos for references can also be helpful.

- Are the contents not educational? In most tour sites in Asia information is restricted to naming things based on their shapes only, rather than interpreting them (Migoń, 2018).
- Can visitors recognize and pinpoint the site to be shown? In many sites, the location of the target objects explained in the panel is not always clear. If necessary, it is better to include the photo of the objects with arrows for tourists to recognize the target objects more easily.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put any marks on the surface of the target objects as well.
- How many languages are shown? Monitoring of international visitors needs to be carried out before deciding on the number of languages to be written.

3) Location and management

- If you would like to show a target object, do not hide the object through the erection of the panels. Always show the target and the interpretation panel at the same time.
- If you would like to explain any specific object, include the photo with the object in the panel and indicate the objective in situ if possible and necessary.
- In most places, inclined panels can be more user-friendly and the contents can be read more easily while looking for the sites to be explained. However, it is better to use upright panels at the entrance of the area for the introduction.
- For maintenance, it is better to print a film material and paste it onto permanent infrastructure. The best material would be stainless steel to prevent rust, but it can be very costly.

Summary

Educational tourism cannot be achieved by an engineering-like system. It can be only achieved by thorough planning and consideration as well as proper attitudes of scientists and government people.

References

Dowling, R.K., 2011,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 1-13.

Dowling, R.K. and Newsome, D., 2005, Geotourism's issues and challenges, In: Dowling, R.K. and Newsome, D., Eds., Geotourism,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p. 242-254.

Dowling, R.K. and Newsome, D., 2018, Geotourism: definition, characterisitic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Dowling, R. and Newsome, D., Eds., Handboon of Geotourism, p. 1-22.

Newsome, D. and Dowling, R.K. (eds.), 2010,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scape. Oxford. Goodfellow Publishers.

Hose, T.A., 2012a, Editorial: Geotourism and geoconservation. Geoheritage, 4, 1-5.

Hose, T.A., 2012b, 3G's for modern geotourism. Geoheritage, 4, 7-24.

Migoń, P., 2018, Geo-interpretation: how and for whom? In: Dowling, R. and Newsome, D., Eds., Handboon of Geotourism, p. 224-233.

Newsome, D., Moore, S.A. and Dowling. R.K., 2013, Natural Area Tourism. Ecology, Implacts and Management (2nd edition), Bristal, Channel View Publication.

Case Presentation 1.
Entlebuch Biosphere Reserve, Switzerland

Dr. Annette Schmid Hofer,
Scientific collaborator, UNESCO Biosphäre Entlebuch

Region of Entlebuch and UNESCO Biosphere Entlebuch

The UNESCO Biosphere Entlebuch (UBE) is located in the heart of Switzerland. The seven municipalities of the biosphere are home to 17,000 inhabitants. Its perimeter covers 394 km², or about one percent of the country's surface area. The UBE is a typically rural pre-alpine region: of the 6,000 employees (full-time equivalents), 22% work in agriculture, and tourism is another important industry. With more than 400 associations and clubs, the region has an active cultural life with more than 50% protected area (8% core zone, 42% maintenance zone), and the region is rich in beautiful landscapes. In the worldwide network of BRs, it is known for its mire and karst landscape. The biosphere is organized as an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and involves the local population in shaping its future through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e management team comprises 13 employees.

Communication strategies

Three communication strategies are presented as examples:

- "Echt Entlebuch-Products" and "Biosphäre Markt AG": The label "Echt Entlebuch" ("Truly Entlebuch") was launched 20 years ago. It guarantees that these products are produced in the region. The trademark owner is the UBE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Today, more than 500 products have been awarded the label. In order to market the products outside the region, 12 producers founded the "Biosphäre Markt AG" in 2013. Today it has a turnover

of 4.3 million Swiss francs per year. The market platform is professional and also supplies the two largest retailers in Switzerland.

- Sustainable tourism offers and "Marketingpool": Sustainable tourism offers allow guests to get to know the biosphere. Each community has positioned itself within the biosphere as a "discovery hub" with a theme (energy, moor, etc.). In order to market these offers jointly, the biggest players in tourism - namely two mountain cable car organizations, the two biggest tourist resorts, and the UBE - have founded a joint tourism marketing team called "Marketingpool." Today basic marketing is carried out jointly, and a wide variety of communication media are used.

- Cultural events: "Alpabfahrt" (ceremonial Alpine cattle descent): A great project is the joint ceremonial alpine cattle descent. It arose from a research project on the future of alpine farming in the UBE. Around 1,500 guests took part in the first "Alpabfahrt," and today, there are up to 13,000 people. The festival is organized by local alpine farmers, the tourist association, the municipality, and many volunteers, with the UBE taking care of the communication.

Conclusion

If we take a look at the similarities of the examples, further communication strategies can be derived:

- Partnerships: Whenever possible, partnerships with big players are sought.
- Ambassadorial role: The communication of products and offers is always done together with local players. These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ojects and thus act as ambassadors for the biosphere.
- Consistent brand management: Products, offers and events are presented under the umbrella brand of the UBE. This strengthens the visibility of the biosphere.

The impact of the strategies was surveyed in two value-added studies. The gross value added in the biosphere summer tourism results in about 5.2 million Swiss francs (2012), the gross value added of the Echt Entlebuch products is about 5.8 million Swiss francs (2017). If this is converted to jobs, then 100 jobs have certainly been created in the region thanks to the UBE.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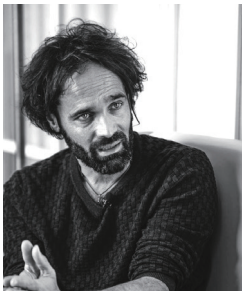
Knaus F. 2012: Bedeutung, Charakteristiken und wirtschaftliche Auswirkungen des Sommertourismus in der UNESCO Biosphäre Entlebuch. Resultate einer umfassenden Gästebefragung. Interner Bericht, ETH Zürich und Biosphärenmanagement UBE, Schüpfheim.

Knaus F. & N. Backhaus 2016: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Swiss Parcs. Swiss Academies Fact Sheet 9(3). Bern.

Knaus F., Ketterer L. & D. Siegrist 2017: The economic impact of labeled regional products: The experience of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Entlebuch.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37(1): 121-130.

Case Presentation 2.
Basque Coast UNESCO Global Geopark, Spain

Dr. Asier Hilario,
Scientific director, Basque Coast UNESCO Global Geopark (Chair,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Communication is a crucial field of work for any UNESCO Global Geopark (UGGp). Good and well-directed communication is absolutely important to boost the sense of belong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it is a basic tool to strengthen the touristic positioning of the territory. Thus, our communication strategy has got two well-defined directions; local people and visitors. The messages and the language must be adapted for each target group.

Any communications strategy should be based on a deep analysis of the key ideas that any UGGp wants to be related to. These messages must be based on the main geological, natural, and cultural values of the territory, including the general UNESCO values of science, culture, and education.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should also be added as general key ideas.

Basque Coast UGGp communication strategy is based on the next key messages that can be obtained from our main values:

1) Deep time. The concept of geological time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not only geological processes, but also our position and role in Earth history.

2)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Understanding big geological events recorded in our rocks related to climate and life evolution is crucial to understanding and facing current and future environmental challenges.

3) Human evolution. Our numerous prehistoric settings give us the chance to connect with the culture, art, and ecosystem of our ancestors.

4) Basque culture and identity. Basque is one of the oldest cultures of Europe. Our language is a living fossil and the main treasure of our strong identity and traditions.

Any communication that wants to be effective needs to consider seriously the kind of public to which it is directed. Therefore, all our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aterials (newspapers, mass, and social media, maps, leaflets, panels, info points, museums, digital interpretation...) are carefully designed and directed to a specific kind of public. Above all, we have put special faith in a very wide programme of guided tours, as we think that human touch with a local and well-trained guide is the best way to understand, connect and enjoy our geopark. (More info: https://geoparkea.eus/en/)

Case Presentation 3.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Republic of Korea

Ms. Seongok Ju,
Action Officer / Geologist,
Cheongsong County Office (Cheongsong UGGp)

UNESCO Global Geopark (UGGp) is a programme to protect a geoheritage with the international geological value as a single unified geographic area as well a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utilizing the geopark into educational tourism. Cheongsong UGGp is communicating with programme participants by operating education and tourism programmes utilizing the UGGp bran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global warming, a universal challenge for humankind.

The educational programme of Cheongsong Geopark consists of 'edutainment' content which allows tourists and local communities to enjoy and learn so that people can approach geology more friendly. In particular, the educational programme is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Youth Training Centre (Youth Geosite Exploration Team), Community Child Centre (GeoDream), Association of Cheongsong Geopark Tour Guides (GeoLife) to encourage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 'Geopark Tour Guide Programme,' which provides customized guides catering to different age groups or communities by Cheongsong geopark tour guides, is a representative tourism programme of Cheongsong Geopark.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number of operations in this guide programme increased by 43% and 52% after the designation of UGGp.

Howev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guide programme decreased by 55%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Cheongsong UGGp is nowadays operating an online geoeducation programme and expanding promotion through social media to continuously spread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during the ongoing COVID-19 situation. To this end, Cheongsong Geopark-related content is periodically updated through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and tourists living in other regions also hav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learn the geology of Cheongsong at their home through ‘volcanic eruption’ and ‘excavating dinosaur fossils’ experience kits. In addition, Cheongsong UGGp is producing a lecture video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ntroducing the geological value of Cheongsong Geopark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which will be released on YouTube in 2021.

Such operational efforts of the geopark will lea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eongsong UGGp’s tourism industry and will continuously utilize the international brand value of UNESCO to generate income for local communities and overcome local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1 October 2021 (Friday)

Theme 3: Ecotourism in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Keynote Speech

Kelly Cerialo, Co-Chair,
UNESCO Champlain-Adirondack Biosphere Reserve
(Associate Professor, Paul Smith's College)

Introduction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estimates that there are 1 billion fewer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is year compared to 2019, and a loss of 1.3 trillion USD in total export revenues from international tourism (UNWTO Tourism Data Dashboard, n.d.). With an estimated 100 to 120 million direct tourism jobs at risk, the Covid-19 pandemic has placed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pressures on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s (UNWTO Tourism Data Dashboard, n.d.). Considering its expansive impacts, the Covid-19 pandemic presents an interesting and rare opportunity for tourism managers to assess and rethink what ecotourism in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should look like, and more importantly, how to turn the challenges that the pandemic has introduced into viable opportunities. Tourism managers have a chance to reimagine a more holistic and collaborative model of ecotourism that protects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health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DAs). This repor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challenges that ecotourism managers face in IDAs, including building resiliency across the tourism ecosystem, mitigating the negative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tourism on a host community, mitigating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wildlife protection, and commodification or conservation of natural assets in IDAs.

In order to provide a path forward for ecotourism managers in IDAs, the report introduces opportunit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long with case examples and tools to measur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on IDAs. The focus of IDAs in this report refers to UNESCO Biosphere Reserves, UNESCO Geoparks, UNESCO Ramsar sites, an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 Working Definition of Ecotourism and Guiding Principl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015), ecotourism is "Responsible travel to natural areas that conserves the environment, sustains the well-being of the local people, and involves interpretation and education." Although there is a multitude of definitions for ecotourism, this defi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will be used as a framework for this discussion on ecotourism in IDAs as it emphasizes conservation, human and natural well-being, and education. Epler Wood (2002) asserts that there are seven key principles of ecotourism that tourism managers should strive to achieve in order to preserve the social, ecological, and economic health of a tourism destination. These seven key principles ar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about the challenges of ecotourism in IDAs. According to Epler Wood (2002, p. 10), the seven key principles of ecotourism are:

1.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2. Sustains the well-being of local people;
3. Includes an interpretation / learning experience;
4. Involves responsible action on the part of tourists and the tourism industry;
5. Tourism experiences are delivered primarily to small groups by small-scale businesses;
6. Requires the lowest possible consumption of non-renewable resources;
7. Emphasizes local participation, ownership and business opportunities, particularly for rural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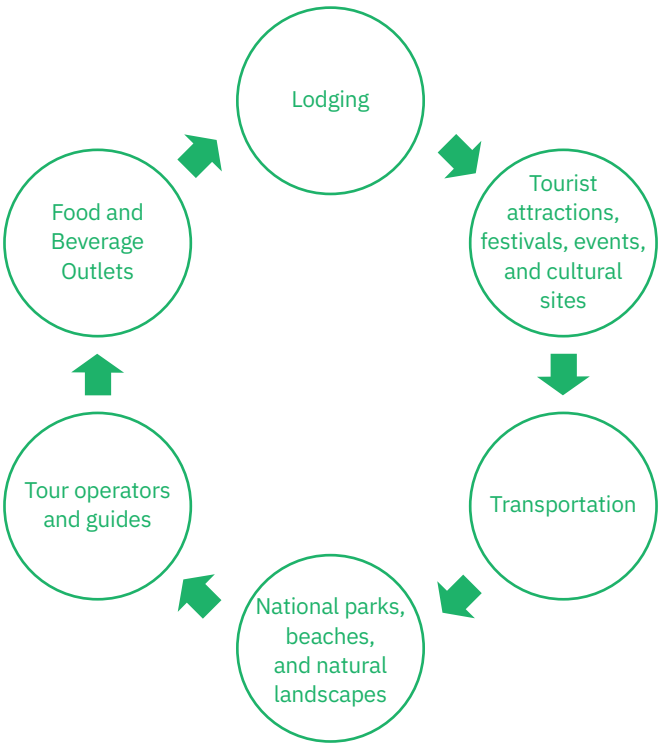
Curr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cotourism in IDAs

Tourism managers in IDAs face a wide variety of challenges while attempting to align with the seven principles of ecotourism. This report focuses on five primary

challenges that tourism managers in IDAs are currently facing and opportunities to build more sustainable models of ecotourism. The five challenges are – building resilience across the tourism ecosystem, mitigating the negative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tourism, reducing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wildlife protection, and commodification vs. conservation of natural assets.

Building Resilience Across the Tourism Ecosystem

The first challenge that tourism managers in IDAs are facing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is the challenge to build resilience across the entire tourism ecosystem (see Appendix A). The Covid-19 pandemic and related travel



Appendix A Tourism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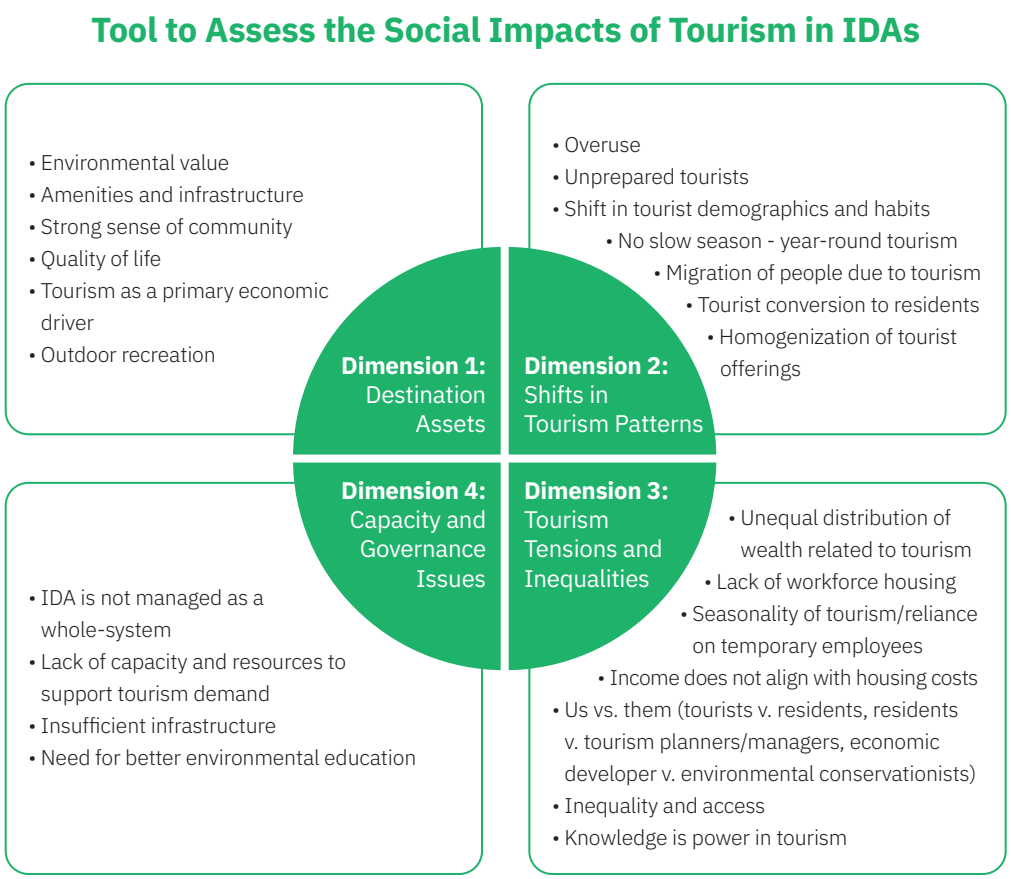
restrictions impacted every facet of the tourism ecosystem, including lodging, food and beverage, attractions/events, transportation, natural landscapes, and tour operators. The sudden and unprecedented changes in the tourism sector revealed substantial vulnerabilities across the entire tourism ecosystem and the need to build resilience in each facet of the tourism sector.

In order to "build back better" and to establish a more resilient tourism framework, tourism managers in IDAs would benefit from adopting a holistic approach to tourism plann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that considers each division of the tourism industry. In addition to accounting for each part of the tourism sector, a whole-system approach to tourism management in a post-Covid world should also integrate government and private partnerships. A case example that illustrates this is the UNESCO Ledro Alps and Judicaria Biosphere Reserve and Adamello – Brenta Geopark in Italy. Local tourism boards worked together with tourism operators and lodging properties to develop partnerships (e.g., virtual study abroad programmes) and a recovery strategy to support different tourism stakeholder groups.

Mitigating the Negative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Tourism

The second challenge tourism managers in IDAs are currently facing is mitigating the negative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tourism in order to preserve the social and cultural integrity of the region. Considering that some of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can be intangible in nature (e.g., community pride), it can be challenging to quantify and track the social impacts from tourism in IDAs without sufficient tools and resources. However, there is a new tool available to tourism managers to assess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in IDAs (see Appendix B). In addition to monitoring and addressing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in IDAs, tourism managers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conserve and promote cultural attractions and to showcase local culture through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food festivals, art exhibitions, stories, dance, etc. A case example that celebrates and preserves the unique cultural heritage of an IDA is the !Khwa ttu San Cultural Centre in the dually designated UNESCO Cape West Coast Biosphere Reserve and the UNESCO Cape Floral Kingdom, World Heritage

Site in South Africa. The San Cultural Centre was built as a celebration of San people's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that shaped the landscape where the cultural centre is built. San people are employed at the centre and play a central role in curating the narrative of their cultural and ecological heritage.



Appendix B Tool to Assess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in IDAs

Reducing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The third challenge that tourism managers in IDAs face is mitigating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Specifically, tourism managers are challenged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such as over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pollution, trail erosion, and aquatic invasive species, while also maintaining a high-quality tourism experience in the natural area. Tourism managers have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in IDAs by coordinating infrastructure planning with community feedback that focuses on conservation, monitoring biodiversity with digital tools, remediation of existing damage, and designing visitor impact mitigation strategies. In order to track environmental impacts and to assess biodiversity, glob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use online digital tools such as the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IBAT), which utilizes three international biodiversity datasets to track and analyze biodiversity –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and the World Database of Key Biodiversity Areas. A case example of an IDA that is actively working to mitigate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from a nearby manufacturing plant is in Bassin Arcachon in Southwest France, a biodiverse Ramsar Site. In order to protect and restore the fragile wetland ecosystem in the region that was being threatened by manufacturing waste and pollution, the local government,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restored a previously damaged wetland habitat to encourage bird reproduction in the Reserve Ornithologique du Teich. The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includes shoreline remediation, ongoing water quality monitoring, hardened trails, and interpretative signage about the wetland ecosystem and the now thriving bird population.

Wildlife Protection

The fourth challenge that tourism managers in IDAs face is wildlife protection. The degree of this challenge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destination; however, one common theme remains – in poor communities, there is a tendency to deplete wildlife to protect themselves, their property, or for financial profi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s

Tourism and Visitor Management in Protected Areas report from 2018, this challenge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ourism managers in IDAs to incentivize impoverished communities to protect wildlife through introducing direct social and/or economic benefits to these communities. A case example of wildlife protection in IDAs is in the Okavango Delta in Botswana, a Ramsar designated site. In 2014, the government instituted a ban on commercial hunting in order to protect wildlife and converted designated hunting zones into photographic regions. Community concessions in the Okavango Delta shifted to focus on photographic tourism and lease fees increased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commercial hunting revenue.

Commodification vs. Conservation of Natural Assets

The fifth challenge that tourism managers in IDAs are facing is the problem of commodification vs. conservation of natural assets. Since tourism is a profit-driven industry, the natural assets in IDAs are at risk of becoming a commodity or resource to be exploited by stakeholders who are more interested in the economic benefits of tourism than promoting conservation practices. Although this is a serious challenge for many tourism managers in IDAs, this also presents an opportunity for managers to build support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culture through dynamic interpretative experiences that showcase the value of IDAs. One example where conservation is prioritized over the commodification of the natural asset is in the Adirondack High Peaks in New York (USA), which is part of the UNESCO Champlain-Adirondack Biosphere Region. As visitation continues to grow in the High Peaks Region with an estimated 8 to 9 million visitors per year, social and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As a response,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Adirondack Mountain Club has introduced programmes such as the Trailhead Stewardship Programme and Summit Stewardship Programme who are responsible for educating outdoor recreationists about leaving no trace outdoor ethics before and during their hiking expeditions. This promotes destination stewardship and conservation practices while also allowing visitors to experience a high-quality outdoor recreation experience.

Conclusion and Lessons Learned from Covid

As the Covid-19 pandemic lingers on, tourism managers in IDAs are presented with new challenges and valuable opportunities to build more resilient models of ecotourism. I conclude this discussion with four lessons that tourism managers in IDAs have learned from the Covid-19 pandemic that can be implemented to improve ecotourism in global IDAs. First,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monitoring is essential, especially during turbulent times when communication and rapid decisions are critical. Second, the most resilient IDAs follow a holistic approach to ecotourism development that includes robust plann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practices that includ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partnerships. Third,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tourism managers in IDAs to promote human and ecological health in the destination communities, across the tourism ecosystem, and throughout the visitor experience. Lastly, digitalization (e.g., virtual reality, holograms, virtual tours, etc.) presents an innovative opportunity for tourism managers in IDAs to better support environmental education, conservation, and advanced monit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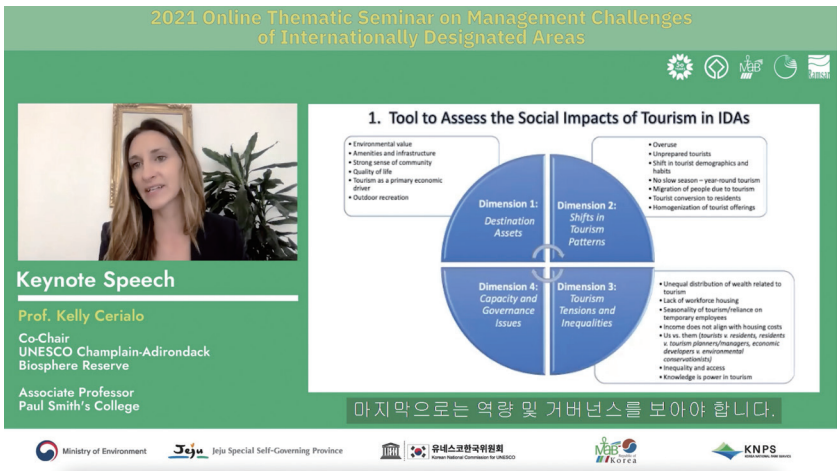
References

Epler Wood, M. (2002). Ecotourism: Principles, practices, and policies for sustainability.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9045/-Ecotourism_Principles,PracticesandPoliciesforSustainability-2002518.pdf?sequence=2

Leung, Y., Spenceley, A., Hvenegaard, G., & Buckley, R. (2018).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s Tourism and Visitor Management in Protected Areas Report. Retrieved from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PAG-027-En.pdf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015). What is ecotourism? Retrieved from https://ecotourism.org/what-is-ecotourism/

UNWTO Tourism Data Dashboard (n.d.). International tourism and Covid-19. Retrieved from https://www.unwto.org/unwto-tourism-dashboard.



Q&A

Q1: Where is the balance between ecotourism and overconsumption of Protected areas?

Presenter: I think the balance comes from holistic management strategies and comprehensive monitoring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Q2: Could you please explain in more detail what else the manufacturers could assist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in Scar site in France?

Presenter: Ideally, local manufacturers could provide funding and resources to assist with monitoring and remediation of damaged areas

Q3: In your experience, how have you balanced promoting the potential economic benefits of ecotourism while also not over-selling the expected benefits to community members? With regards to support for ecotourism at IDAs, what kind of arguments do community members respond to best? For example, are arguments about economic benefits or conservation benefits most effective (in your experience)? I understand this will vary greatly by site, context, etc.

Presenter: As you said, it varies greatly by the site. If resources permit, conducting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with projections of economic benefits can assist with providing community members with realistic data about what tourism can and cannot do. In terms of the arguments that community members respond to the best - the first step is to assess and understand the position and needs of diverse stakeholder groups across the community. Once you know that, it will assist with creating messaging that resonates with diverse stakeholder groups. Some groups respond best to the economic benefits, and others respond best to conservation benefits.

Q4: I would appreciate Prof. Kelly's views on the cost of wildlife conservation, protection as well as tools for valuing the wildlife asset in a way that communities can experience. Lastly, is there any way of supporting IDAs suffering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covid era?

Presenter: Here are some steps to support IDAs suffering from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Enhanc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to IDAs and biodiversity in the surrounding landscape - that can bring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potentially recruit additional support. Also, Promote the Capacity of IDA Manager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y sharing best practices and guidelines from other global IDAs.

Case Presentation 1.
Cat Ba Biosphere Reserve, Vietnam

Mr. Tuyen Thanh Le, PhD candidate,
Institute for Social Innovation and Impact, University of Northampton

Cat Ba Biosphere Reserve (BR), located in Cat Ba Archipelago of Haiphong City, Vietnam, is a special natural wonder for ecotourism experiences. The archipelago has been designated with seve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titles, such as: (1) National Park (1986), (2) Biosphere Reserve (2004), (3) Proposed Global Geopark (2007), (4) Learning Lab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9), (5) Record: Biosphere Reserve with the most tourist attraction (2014), (6) Marine Protected Area (2010), (7) Largest primary tropical monsoon forest on limestone islands (2011); (8) Largest Mangrove forest on islands (2011), (9) Archipelago with the most marine lakes (2011), (10) National beauty spot (2012), (11) Archipelago with the most number of islands and islets in Vietnam (2012), (12) Largest limestone island in Southeast Asia (2013), (13) National Special Monument (2013), (14) Island with the most number of fresh water crab species (3/8 species), (15) Nominated PSSA (2015), (16) Proposed World Heritage site (2011, 2016, 2021), (17) Lan Ha Bay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Bays in the World (2020) (Cat Ba Biosphere Reserve, 2021).

Ecotourists in Cat Ba BR can experience seven tropical ecosystem types, including: Primary tropical monsoon forest on the largest limestone island in Vietnam; Tidal ecosystems; Coral reefs; Marine lakes (one-third of the world's marine lakes); Soft bottom ecosystems; Cave and grottos ecosystems (esp. dark water cave); and Mangrove ecosystem. Besides, there are chances to observe the vibrant living species of Cat Ba, which include 4,637 species of terrestrial,

freshwater, coastal, and marine plants and animals, including 114 species in the IUCN Red List, 73 endemic animal species, and 20 endemic plant species (Cat Ba Biosphere Reserve, 2021).

Ecotourism activities develop across three zones of Cat Ba BR, including those by Cat Ba National Park and by local businesses and communities. Major ecotours inside Cat Ba National Park include Kim Giao Forest - Ngự Lâm Peak (1.5km), Trung Trang & Uy Ban Grottos (1.2km), National Park Headquarter - Ao Ech - Viet Hai (14km: trekking & walking) - Lan Ha Bay (2 hours boat & kayak), and National Park HQ - Ao Ech (Frog Pond Crater; 2 - 2.5 hours one way) (Cat Ba National Park, 2021). There are community-based ecotourism models in some communes of Cat Ba BR, such as Phu Long Commune Home-stay Ecotourism (Sails of Indochina - Lan Ha Bay, 2017); Viet Hai Commune Homestay (VietHai tour, 2021); Eco-camping in Hien Hao Commune (Du lich Cat Ba, 2018).

Despite huge and untapped potentials, the sustainable ecotourism of Cat Ba BR still faces several challenges, such as Carrying Capacity, Wildlife protection, Forest and water resources consumption, Waste and Sewage, Traditional values conservation, and climate change. Cat Ba National Park, as typical Vietnam Protected Areas, still lack resources, poor infrastructure and lack of facilities and basic infrastructure to organize ecotourism activities, unprofessional service quality (Vân, 2020). The author proposed to establish a formal Ecotourism Association to gather efforts in assisting Cat Ba BR to the next level of ecotourism experience quality.

References

Cat Ba Biosphere Reserve. (2021). Biodiversity of Cat Ba Biosphere Reserve. http://catba.net.vn/biodiversity/?lang=en

Cat Ba National Park. (2021). Trails and Activities in the Park. https://catbanationalpark.vn/cat-ba-national-park-6

Du lich Cat Ba. (2018). Hien Hao Camping site. https://www.facebook.com/catbatravels.vn/photos/pcb.605500203182164/605499359848915

Sails of Indochina - Lan Ha Bay. (2017). Mangrove Forest & Thien Long Cave Discovery - Ecolife Authentic Homestay in Phu Long Village. http://www.sailsofindochina.com/en/blogs/mangrove-forest-thien-long-cave-discovery-ecolife-authentic-homestay-in-phu-long-village/

Vân, N. T. (2020). Policy 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ourism in Vietnam's National Parks and Nature Reserves. Institure for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https://doi.org/10.1016/B978-0-323-60984-5.00062-7

VietHai tour. (2021). Viet Hai Tour. https://www.facebook.com/photo?fbid=3075842252455267&set=pcb.3075844522455040

Q&A

Q1: Many regions seem to have a distinct style of ecotourism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For example, some might involve more 'wilderness,' or activities, or community engagement, etc. Are there a distinctive Vietnamese-style of ecotourism compared to other regions? I wonder what other IDAs could adapt from that approach.

Presenter: I think ecotourism in Cat Ba now is still at its infancy, and thus there is a mix of both NGO/research body-initiated and community-initiated practical models outside the national park, but not 'whole BR as an ecotourism destination' approach yet. Nationally the government is now revising ecotourism policies for national parks. The good observation of Cat Ba is that our communities and people have much potential to share and develop ecotourism as true local owners and ecotourism holders.

Case Presentation 2.
Ngorongoro Lengai UNESCO Global Geopark, Tanzania

Mr. Joshua Mwankunda,
Manager for Cultural Heritage and Geopark Department,
Ngorongoro Conservation Area Authority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a way forward.

Ngorongoro Conservation Area (NCA), located in Northern Tanzania, was established in 1959 by the NCAA Ordinance No 413 of 1959 as multiple land-use areas with objective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safeguard the interests of NCA indigenous residents and promote tourism. The landscape of the NCA is protected to conserve nature, ecology, wildlife, and prehistoric and contemporary archaeological and paleoanthropological features while integrated with human settlement to the extent of 8,292 km² (Mwankunda, 2020).

NCA is a UNESCO Man and Biosphere Reserve, UNESCO Mixed World Heritage Site, and UNESCO Global Geopark that is home to about 90,000 Indigenous people from three ethnic groups: Maasai pastoralists, Tatoga pastoralists with minimal crop cultivation, and Hadzabe hunters and gatherers. It also attracts about 700,000 visitors each year.

Walking safaris led by local guides, wild camping facilitated by local communities, selling of locally made handicrafts as souvenirs, beekeeping experience, and selling of high-quality local honey, and showcasing of traditional experiences such as culture living and dances are all examples of ecotourism opportunities in this area.

Ecotourism management in the Ngorongoro – Lengai UNESCO Global Geopark is hampered by the loss of plant cover and diminished pastures caused by climatic

changes, as well as rising populations of local residents, cattle, and wildlife. Other challenges include the loss of cultural values as a result of increased interactions with visitors, increased commodification of cultural practices, and general increases in poverty as a result of restrictions on communities' ability to engage in other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is protected area, as well as the decline of the pastoral economy and the inability of ecotourism financial incomes to meet all community financial needs.

Local communities are being encouraged to live outside protected areas by the Ngorongoro Conservation Area Authority (NCAA), which manages the NCA UNESCO Man and Biosphere Reserve, NCA UNESCO Mixed World Heritage Site, and Ngorongoro – Lengai UNESCO Global Geopark. This allows them to continue to benefit from ecotourism while also having the freedom to engage in other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attain optimal community benefits while balancing the area's conservation demands, NCAA has also enhanced conservation education and spurred revisions of the multiple land-use models.

Case Presentation 3.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Republic of Korea

Ms. Nami Kim,
Manager, Jeju Secretariat of World Network of Island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 (WNICBR)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for Ecotourism Village

Jeju Island has climatic characteristics such as subtropical, warm, temperate, and subpolar depending on the altitude above sea level, centering on Hallasan Mountain, which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island, so the ecosystem composition and species vary considerably. In recognition of these unique and diverse species of flora and fauna with the excelle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 Jeju Island was designat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BR) in 2002.

In 2019, Jeju Island expanded the BR area to the entire Jeju Island on land and within 5.5km of the coastline to systematically manage natural resource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 such as Gotjawal and wetlands, while expanding the brand utilization of local products and promoting ecotourism.

The government of Jeju Island is supporting various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in economic, socio-cultural, and ecological aspects.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for Ecotourism Village is one of the key projects on which the government is focusing. The government of Jeju Island is providing monetary support to all villages across the island through this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for Ecotourism Village; 250 million KRW for each village for five years.

Jeju Island promoted the pilot project in Jeoji-ri and Harye-ri villages in 2014.

Regional councils of each village were organized in which local communities, environmental groups, administrative and ecotourism experts participated in promoting the project. A regional customized ecotourism model was established by investigating in-village ecotourism resources, educating residents and training local commentators, monitoring ecological resources, developing ecotourism programmes, and consultation for brand utilization of the local products. As a result, the support project for villages in Jeoji-ri and Harye-ri ended in 2018, and is currently operating as a resident-led project.

Jeoji-ri and Harye-ri villag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ature's value and preservation through this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and operate sustainable ecotourism programmes by correctly utilizing local natural resources, thereby generating economic benefits.

Since 2019, the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for Ecotourism Village has been promoted for Hogeun-dong and Pyeongdae-ri villages, and various consulting and education for residents are being conducted to organize a resident council to become an ecotourism village. This project will be carried out by 2023, and continuous support will be provided to establish itself as a resident-led ecotourism village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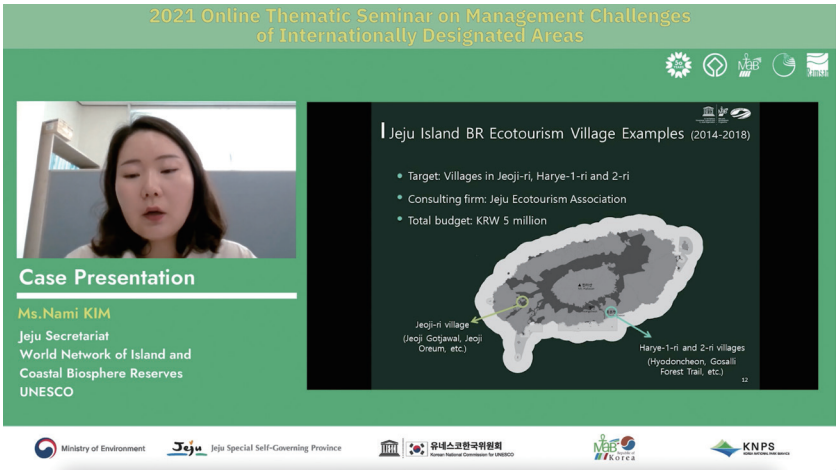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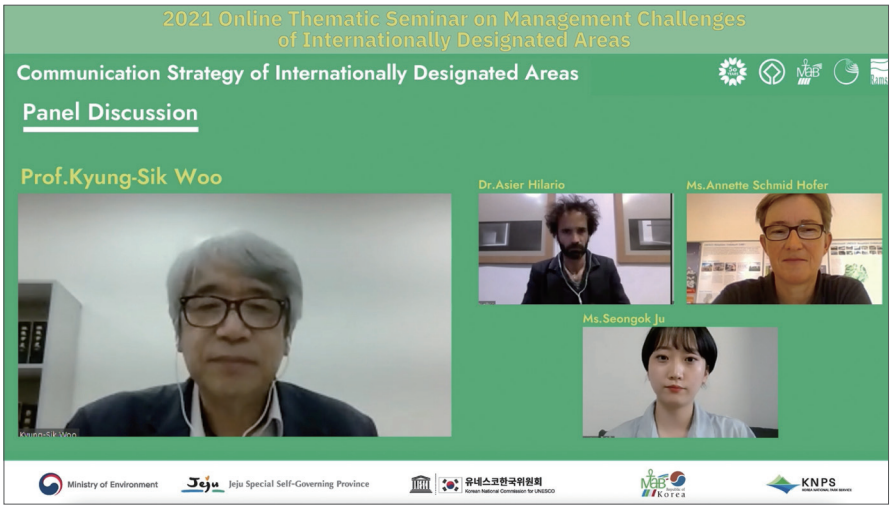
사진 | Photos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첫째 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은영 과학청년팀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Ms. Eun-Young Kim, Director of Division of Sciences&Youth in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s hosting the first day of the seminar.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첫째 날 이시와란 나타라잔 박사(왼쪽)를 중심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Dr. Ishwaran Natarajan (left) is chairing the panel discussion with three case presentation speakers on the first day of the seminar.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둘째 날 우경식 교수(왼쪽)를 중심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Prof. Kyung-Sik Woo (left) is chairing the panel discussion with three case presentation speakers on the second day of the seminar.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셋째 날 세리아로 캘리 교수(좌측 상단)를 중심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Prof. Kelly Cerialo (upper left) is chairing the panel discussion with three case presentation speakers on the third day of the seminar.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셋째 날 발표자 및 참가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Presenters and participants of the seminar are taking group photos on the final day of the seminar.

Published in November 2021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공동 발간

26 Myeongdong-gil (UNESCO Road) Jung-gu Seoul 04536 Republic of Korea
서울 중구 명동길 (유네스코길) 26

e-mail: scshs.team@unesco.or.kr

The present edition has been published as the final report of the 2021 Online Thematic Seminar on Management Challenge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organized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21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의 결과보고서로 발간되었습니다.

KNCU Registration No: SC-2021-RP-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 등록번호: SC-2021-RP-2